



Elegance is an attitude

Jung Woo-Sung
Jung Woo-Sung

LONGINES

Since 1832
190



론진 부티크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부산본점 대전점 울산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대구점 AK플라자 수원점

www.longines.co.kr

THE LONGINES
MASTER COLLECTION

THE CLASS

VOL.59 2022 AUTUMN

THE CLASS

MEMBERSHIP MAGAZINE

VOL.59
2022
AUTUMN



PREVIEW

궁극의 순수 전기 프리미엄 SUV
Mercedes-EQ
The new EQS SUV

BRAND STORY

메르세데스-AMG의 새 브랜드 캠페인
Changing the Game

MOTOR SPORT

포뮬러 E 서울 더블 챔피언
Mercedes-EQ



더클래스 효성이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The Class Hyosung

Experience Future with Premium Lifestyle Provider



NETWORK



메르세데스-벤츠
강남대로 전시장 ·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전시장 **02-575-7500**
서비스센터 **02-570-1111**



메르세데스-벤츠
안양 평촌 전시장 · 서비스센터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74 | **031-689-8900**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73 |
031-596-2600



메르세데스-벤츠
용인 수지 전시장 · 서비스센터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7 | **031-5183-9200**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147 | **031-290-3700**



메르세데스-벤츠
동탄 전시장 · 서비스센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92
(영천동 494-13)
전시장 **031-880-0200**
서비스센터 **031-880-0288**



메르세데스-벤츠
송파 전시장 · 서비스센터
전시장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0 |
02-3434-4000
서비스센터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길 6 |
02-2152-3333



메르세데스-벤츠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 2층
1273호
031-8072-8900



메르세데스-벤츠
청주 전시장 · 서비스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28
전시장 **043-299-9000**
서비스센터 **043-299-9090**



메르세데스-벤츠
천안 전시장 · 서비스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47
전시장 **041-620-7000**
서비스센터 **041-620-7070**

“더클래스 효성이 최상의 서비스와
기술력으로 고객의 마음을 읽겠습니다”



더클래스 효성
바로 가기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효성벤츠타워
www.theclashyosung.com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메르세데스-벤츠
구리 전시장 · 서비스센터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13
전시장 **031-579-0900**
서비스센터 **031-579-0970**



메르세데스-벤츠
분당 정자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7
031-786-6000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55길 65
02-3488-2400



도곡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65길 9
02-575-7340



신사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73
02-540-7900



죽전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9
031-786-6100



인증 중고차 죽전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9
2층 전시장 **031-786-6171**



인증 중고차 하남
전시장 · 서비스센터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 188
전시장 **02-3433-1999**
서비스센터 **02-3433-1900**



인증 중고차 천안 전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33,
1층 **041-555-5070**

The Class Hyosung

Experience Future with
Premium Lifestyle Provider



더클래스 효성은
세계 최고의 명차로 인정받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 딜러이며 자동차의 디지털화,
친환경화라는 트렌드를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 여러분의 품격과 명성에 걸맞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과
가장 먼저 미래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최고의 딜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Showroom 전시장

강남대로 전시장 : 02-575-7500
분당 정자 전시장: 031-786-6000
송파 전시장 : 02-3434-4000
안양 평촌 전시장 : 031-689-8900
청주 전시장 : 043-299-9000
천안 전시장 : 041-620-7000
구리 전시장 : 031-579-0900
용인 수지 전시장 : 031-5183-9200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 031-8072-8900
동탄 전시장 : 031-880-0200
인증 중고차 죽전 전시장 : 031-786-6171
인증 중고차 하남 전시장 : 02-3433-1999
인증 중고차 천안 전시장 : 041-555-5070
Mercedes Café by The Class Hyosung :
031-8072-8902

Service Center 서비스센터

강남대로 서비스센터 : 02-570-1111
서초 서비스센터 : 02-3488-2400
도곡 서비스센터 : 02-575-7340
신사 서비스센터 : 02-540-7900
송파 서비스센터 : 02-2152-3333
안양 평촌 서비스센터 : 031-596-2600
죽전 서비스센터 : 031-786-6100
용인 수지 서비스센터 : 031-290-3700
구리 서비스센터 : 031-579-0970
하남 서비스센터 : 02-3433-1900
동탄 서비스센터 : 031-880-0288
청주 서비스센터 : 043-299-9090
천안 서비스센터 : 041-620-7070



|더클래스 효성 Customer Center 1899-0808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WHITE GOLD WITH A THIN LAYER OF RHODIUM PLATING FOR COLOR

CHANEL

FINE JEWELRY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EARRINGS AND NECKLACE IN 18K BEIGE GOLD, 18K WHITE GOLD* AND DIAMONDS.

CONTENTS

THE CLASS
Membership Magazine

VOL.59 Edition
2022 AUTUMN



COVER

지난 9월 29일 공개한 전기차
Mercedes-EQ The new EQS SUV.
최대 7명이 탑승 가능한
순수 전기 프리미엄 SUV로,
기존 양상차 중 공기저항계수가
가장 낮아 민첩한 몸놀림을 자랑한다.

발행처

더클래스 효성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발행일

2022년 10월 26일

발행인

이철승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강남 바 00105

www.theclasshyosung.com

기획·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 <THE CLASS>는 더클래스 효성 고객을 위해 발행하는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입니다.
- <THE CLAS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THE CLASS>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TRO

08 FASHION

New Heros

10 WATCH

Perfect Man

12 LIFESTYLE

올 가을, 특별한 홈카페로의 초대



BRAND



14 BRAND STORY

메르세데스-AMG의 새 브랜드
캠페인, Changing the Game

18 ISSUE

기존의 한계와 불가능에 대한
도전 세상에 한 대뿐인
메르세데스-AMG

22 SPECIAL

메르세데스-벤츠의
120년 모터 역사가 한자리에
Classic Days 2022

26 EXPERT

가장 효율적인 전기차 공장

30 MOTORSPORT

포뮬러 E 서울 더블 챔피언
Mercedes-EQ

36 MEET

더클래스 효성 하남 서비스센터·
인증 중고차 전시장 오픈

40 SPECIAL EDITION

창립 19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Mercedes-AMG G 63
Hyosung Edition

42 PREVIEW

궁극의 순수 전기 프리미엄 SUV,
Mercedes-EQ
The new EQS SUV

44 CLASS NEW

전기 비즈니스 세단의 미래,
Mercedes-EQ
The new EQE 350+



LANSMERE
Golf Collection

CONTENTS

BLING



- 46 TRAVEL WITH BENZ
가을, 시간이 머무르는 그곳으로
- 52 REVIEW
비즈니스 세단과 스포츠카의 만남,
Mercedes-AMG A 35 4MATIC
- 56 FOR BENZ
Time to Have,
Travel Bag New Collection
- 58 #SCENE
맥주와 예술을 사랑한 도시,
Munich
- 64 PLACE
호텔과 캠핑 사이 그 어디선가,
Glamping

BEYOND



- 70 GOURMET
완벽함을 풀어내는 다양한 방식
강민철 셰프의 ATUM
- 74 CURATION
주목해야 할 갤러리, Gallery in Seoul
- 80 NEWS
- 86 FOR READERS



EQS

This is for you.



더클래스 효성

instagram.com/theclasshyosung/
youtube.com/channel/UCvwTbWToVRH3gLqHWgYXpjw
facebook.com/ilovetheclasshyosu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 강남대로 전시장 02)575-7500 ■ 송파 전시장 02) 3434-4000 ■ 분당 정자 전시장 031) 786-6000 ■ 안양 평촌 전시장 031) 689-8900 ■ 구리 전시장 031) 579-0900
■ 용인 수지 전시장 031) 5183-9200 ■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031) 8072-8900 ■ 청주 전시장 043) 299-9000 ■ 천안 전시장 041) 620-7000 ■ 동탄 전시장 031) 880-0200
■ 인종중고차 하남 전시장 02)3433-1999 ■ 인종중고차 죽전 전시장 031) 786-6171 ■ 인종중고차 천안 전시장 041) 555-5070 ■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New Heros

새로운 영웅들과 함께 모험의 세계로.



에스.티. 듀폰의 라이터는 남자의 로망이다. 성공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감성을 자극하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1941년 석유를 연료로 한 최초의 휴대용 럭셔리 라이터를 공개한 에스.티. 듀폰은 끊임없는 진화 속에 클래식 아이콘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중 라인 (LIGNE) 2는 에스.티. 듀폰의 상징적 컬렉션으로 특유의 '클링' 사운드와 영롱한 디자인, 완벽한 그림감까지 갖췄다. 여기에 에스.티. 듀폰은 시그니처인 '클링' 사운드를 한층 발전시켜 새로운 '뉴 라인 2' 라이터를 출시했다. 맑고 청아함은 물론, 한결같은 클링 사운드를 위해 '마이크로 다이아몬드 헤드'라 명명한 섬세하고 정교한 기요세 기술과 더불어 새로운 구조의 디자인을 적용했다. 모든 라이터는 프랑스 파베지에 위치한 아틀리에에서 70여 개 부품과 600개 이상의 공정, 300개 항목 이상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거쳐 장인들의 수작업으로 탄생한다. 각각의 라이터에 식별 가능한 고유 번호를 부여해 소장 가치를 높였고, 몸체부터 가스 저장 탱크까지 단 하나의 금속으로 제작해 완벽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Editor 양정원 Photo 신채영 문의 에스.티. 듀폰 02-2106-3577



Perfect Man

디자인과 성능, 그 완벽함에 홀리다.



100년이 넘는 군용 시계 제조 역사를 자랑하는 해밀턴이 선보이는 카키 컬렉션에 독특한 매력의 영웅들이 합류했다. 지름 40mm 스틸 케이스의 '카키 파일럿 파이오니어 메커니컬 크로노그래프'는 1970년대 영국 왕립 공군 파일럿을 위해 제작한 크로노그래프의 디테일을 고스란히 담았다. 블랙 그레이н 다이얼 위에 나란히 배치된 2개의 카운터는 각각 분과 러닝 세컨즈를 측정하며, 영국 왕립 공군이 중시했던 속도 계산 및 항법 연산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H-51 기계식 무브먼트, 화이트 래커 처리한 핸즈 및 아워 마커를 대신하는 도트에는 빈티지 라동 톤을 재현한 베이지 슈퍼 루미노바를 코팅해 빈티지한 무드를 강조한다. 카키 다이얼이 돋보이는 '카키 필드 티타늄 오토'의 핵심 요소는 바로 성능이다. 핸즈와 인덱스에 슈퍼 루미노바 코팅을 더해 완벽한 가독성을 확보했다. 전통적 군용 시계의 사양을 반영해 24시간 눈금 표시도 적용했다. 브러싱 처리한 지름 38mm의 티타늄 케이스에 H-10 무브먼트가 8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제공하며, 니바크론™ 소재의 밸런스 스프링이 장착돼 있다.

Editor 양정원 Photo 신채영 문의 해밀턴 032-320-7559

다시 찾아온 여행의 행복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로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아름다운 시간 여행을 선물해 주세요.

LIVE WITH
Vacations

하나! | 가입특전

국내 호텔/리조트 숙박권 최대 100만원!

둘! | 보너스 특전

전 세계 Hilton 브랜드 호텔 무료 이용 혜택!

*가입 구좌에 따라 차등 적용

1

유지·관리하기 편한 해외 별장

- 주(week) 단위로 원하는 만큼 등기 가능
- 소유한 리조트는 성수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에 우선 예약

2

Hilton의 모든 것을 누리는 World Class Ownership

- 150여 개 HGV리조트와 7천여 개 힐튼 체인 호텔 이용
- 전 세계 힐튼 체인 호텔 투숙 시 조식 무료,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 등 Hilton Honors VIP 멤버십 평생 제공
※가입 구좌 및 호텔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전 세계 7만 명이 경험한 유연한 활용

- 가족, 지인, 임직원 등 무기명으로 이용 가능
- 해외 여행, 영어 캠프, 비즈니스 출장, 포상 휴가 등 필요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객실 타입 이용 가능
- 포인트 기반 시스템으로 이월, 분할, 전환 등 유연한 활용

원두에서 커피까지 완벽한 커피 한잔의 모멘트 올 가을, 특별한 홈카페로의 초대



바야흐로 홈카페의 시대. 특히 카페에서만 마시던 다양한 커피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마시는 것이 이제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다. 좀 더 완벽한 풍미의 커피를 집에서 즐기고 싶다면 나만의 '홈 바리스타'가 되어줄 프리미엄 전자동 커피머신을 주목해보자.

자료제공 드롱기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드롱기 (De'Longhi)는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세계 판매 No.1 브랜드로 국내에서도 가정용 전자동 및 반자동 커피머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커피를 잘 알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집에서도 이탈리아 현지 카페에서 맛보는 것과 같은 완성도 높은 커피를 즐기자 하는 이들에겐 드롱기 커피머신이 제격이다. 그중에서도 드롱기의 '프리마돈나 엘리트'와 함께라면 완벽한 커피 한잔의 프리미엄 홈카페를 완성할 수 있다.

갓고 싶은 궁극의 프리미엄 커피머신, '프리마돈나 엘리트'

'프리마돈나 엘리트'는 눈길을 끄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을 자랑하는 드롱기의 고품격 홈카페 커피머신이다. 모던한 디자인의 스테인리스스틸 본체와 4.3인치 크기의 풀 컬러 터치 인터페이스가 눈길을 끈다. 원터치 버튼 터치만으로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플랫 화이트 등 총 17가지의 메뉴를 추출할 수 있다. 프리마돈나 엘리트의 특징점은 17가지 메뉴별 각각 다른 추출 시스템을 통해 최상의 맛을 선사한다는 점. 각 메뉴에 따른 미세한 탬핑 압력이 조절되는 추출 시스템, 커피 추출용 보일러와 우유 공급용 보일러를 통해 풍부한 향의 커피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최적의 에스프레소를 위한 19바의 높은 압력이 커피의 맛과 풍미를 최상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드롱기만의 특별한 라떼크레마(LatteCrema) 시스템은 완벽한 온도로 크리미하면서 밀도가 높은 우유 거품을 완성해준다. 더불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IoT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 원격제어로도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올가을, 좀 더 특별한 나만의 홈카페를 원한다면 드롱기의 '프리마돈나 엘리트'를 만나보자.



프리마돈나 엘리트만의 장점

-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기는 17가지 메뉴** 에스프레소, 도피오 플러스, 롱, 아메리카노부터 카푸치노, 라떼 마키아토,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플랫 화이트 등의 우유 베이스 커피도 자동 추출된다. 따뜻한 커피 메뉴뿐만 아니라 코코아와 아이스크림까지 손쉽게 완성해준다.
- **라떼크레마 시스템** 드롱기만의 특별한 라떼크레마 시스템이 조밀하고 오래 유지되는 우유 거품을 제공한다. 크리미한 우유 거품의 커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다.
- **원두 그라인딩 기술** 통합 그라인딩 기술을 통해 분쇄 단계 조절이 가능하다. 100% 정확도로 보장되는 코니컬 그라인더를 통해 신선한 분쇄가 가능하다.
- **Coffee Link 앱 지원** 커피 링크 앱을 통해 나만의 음료 취향을 설정할 수 있는 6개의 개별 프로필을 관리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생성할 수 있다.
- **간편한 세척** 통합 세척 기능으로 간편하면서도 철저한 위생 관리가 가능하다. 우유와 접촉한 모든 부품은 따로 분리 세척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척된다.

De'Longhi

커피를 아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택



1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세계 판매 1위*

delonghi.com

판매처 : 드롱기 컨셉스토어 강남 02-6080-0024, 광화문 02-6000-9851,
양재 02-6000-9852, 부산 051-746-0029, 전국 주요 백화점

* 출처 : 독립조사기관, 2021년 전체 매출액 기준



메르세데스-AMG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메르세데스-AMG 비전 콘셉트, 메르세데스-AMG 원(ONE),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쿠페, 300 SEL 6.8 AMG 레이스 투어링 카

메르세데스-AMG의 새 브랜드 캠페인 Changing the Game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은 메르세데스-AMG가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55년-판도를 바꾸다(Changing the Game)'를 시작했다. 브랜드 홍보대사인 일라이엄과 데이비드 콜사드, 루이스 해밀턴 등을 앞세워 소셜 미디어를 무대로 다양한 관점에서 브랜드를 조망한다. 나아가 이탈리아 신발 브랜드 산토니와 협업해 부츠와 운동화 등도 한정판으로 내놨다.

Writer 김기범(자동차 칼럼니스트)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메르세데스-벤츠 엔지니어가 설립한 튜닝 회사

레이스에 폭 빠진 두 엔지니어가 있었다. 자동차 회사를 다니면서도 늘 갈증을 느꼈다. 결국 1967년 두 남자는 함께 퇴사해 창업했다. 한스 베르너 아우프레흐트(Hans Werner Aufrecht)와 에르하르트 멜허(Erhard Melcher), 각각의 성과 처음 회사를 설립한 지역인 그로사스파흐(Großaspach)의이니셜을 따서 브랜드명을 지었다. 바로 'AMG'였다. 이들에게 취미와 일의 경계는 모호했다. 그저 열정을 좇아 달렸다. 레이스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며 이름을 알렸고, 명성을 듣고 찾아온 고객에게 고성능 메르세데스-벤츠

를 팔았다. BMW M3의 대항마를 고민하던 메르세데스-벤츠는 1993년 자사 딜러망을 통해 AMG 모델을 팔 수 있도록 계약했다. 나아가 1999년 지분 51%를 사들였고, 2005년엔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오늘날 공식 회사명은 메르세데스-AMG다. 독일 남부의 아팔터바흐(Affalterbach)를 거점으로 삼는다. AMG 로고 속 사과나무가 바로 이 지역 특산물이다. 사실 아팔터(Affalter)가 독일어로 '사과나무'라는 뜻이다. 메르세데스-AMG는 2,000명 이상의 직원과 자체 엔진 제조 시설까지 갖췄다. 실제로 모회사와 별도로 전용 모델을 개발 및 생산한다.



1971년 벨기에의 스파프랑크르상 서킷을 질주하는
300 SEL 6.8 AMG 레이싱 투어링 카



AMG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한스 베르너 아우프레흐트. 메르세데스-벤츠 엔지니어 출신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AMG를
2005년 자회사로 편입시킨 이후
독립 브랜드로 육성해 큰 성공을 거뒀다.

전설로 회자되는 고성능 벤츠들

AMG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전설적인 모델을 선보여왔다. 300 SEL 6.9 AMG 레이싱 투어링 카(1971년), 300 E 5.6 '더 해머'(1992년) 등이 대표적이다. 자회사 편입 이후엔 튜닝의 범위를 넘어 레이싱카 인증을 위한 한정판으로 영역을 넓혔다. CLK-GTR AMG(1998년), CLK DTM AMG(2005년)가 좋은 예다. 나아가 2010년 SLS AMG를 선보이며 모기업과 겹치지 않는 독자 모델 역사의 물꼬를 텃다. 이후 2014년 메르세데스-AMG GT, 2018년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쿠페로 라인업을 확장했고, 올해 영국의 '굿우드 페스티벌(Festival of Speed at Goodwood)'에서 공개한 1,063마력의 메르세데스-AMG 원(ONE)으로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메르세데스-AMG는 파가니, 애스턴마틴, 로터스 등의 스포츠카 회사에 직렬 4기통에서부터 V12에 이르는 다양한 엔진을 공급 중이다. 2013년 SLS AMG 쿠페 일렉트릭 드라이브를 통해 전기 파워트레인 숨씨도 과시했다. 10년 전 선보인 전기차지만 최고출력 740마력, 0-100km 가속 시간 3.9초 등 오늘날과 비교해 손색없는 성능을 뽑냈다.

창립 55주년 기념 브랜드 캠페인

어느덧 올해로 메르세데스-AMG가 창립 55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55년-판도를 바꾸다'란 슬로건을 앞세워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새 브랜드 캠페인에 나섰다. 콘텐츠엔 윌아이엠(will.i.am), 수지 울프(Susie Wolff), 데이비드 콜사드(David Coulthard), 루이스 해밀턴(Lewis Hamilton) 등의 홍보대사와 현직 직원이 출연했다. 또한 메르세데스-AMG 공식 웹사이트의 기고,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의 특별 전시회, 아팔터마흐 AMG 프라이빗 라운지에서의 임시 전시회, 유튜브 채널의 '인사이드(Inside) AMG' 특별 에피소드 등을 통해 지난 55년 역사를 사람과 자동차에 대한 실제 이야기 중심으로 풀어냈다. 나아가 AMG가 기존 판을 뒤엎는 배경과 명분을 알렸다. "AMG는 55년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해왔습니다. 창업자들이 그랬듯, 아팔터마흐 본사엔 매우 특별한 낙관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죠. 덕분에 우린 전동화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직원들이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메르세데스-AMG 이사회 회장 필립 슈머(Philipp Schiemer)의 말이다.



“AMG는 55년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해왔습니다.
창업자들이 그랬듯, 아팔터마흐 본사엔 매우 특별한 낙관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죠.
덕분에 우린 전동화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직원들이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탈리아 회사와 함께 만든 신발

메르세데스-AMG는 55회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가죽 장인 회사 산토니(Santoni)와 손잡고 '캡슐 컬렉션(Capsule Collection)'도 선보였다. 여성과 남성용 부츠, 운동화, 레이스복서를 각각 55피스씩 한정 생산한다. 사실 이 회사는 오래전부터 메르세데스-AMG의 FIA(국제자동차연맹) 승인 레이싱 슈즈 등을 생산·납품해왔다. 캡슐 컬렉션 가운데 레이스복서는 2007년 처음 출시한 'AMG를 위한 산토니(Santoni for AMG)'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 산토니는 라이프스타일과 럭셔리를 매우 스포티하고 표현력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되 FIA의 프로 레이싱용 인 증까지 마쳤다. 세 가지 색상의 레이스업 스니커즈와 앵클 하이 부츠도 상징성과 희소성 때문에 소장 가치가 높다. 메르세데스-AMG와 산토니의 협업은 진취적 도전 정신과 완벽한 장인 정신의 만남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산토니는 이탈리아 마르케(Marche) 지역의 신발 제조 거점 코리도니아(Corridonia)에서 1957년 창업한 회사다. 창업자 안드레아 산토니(Andrea Santoni)의 노력으로, 장인 공정을 산업화하는 데 성공해 오늘날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탈리아 신발 브랜드 산토니가 메르세데스-AMG를 위해 내놓은 한정판 컬렉션

기존의 한계와 불가능에 대한 도전

세상에 한 대뿐인 메르세데스-AMG

메르세데스-AMG가 브랜드 홍보대사이자 미국의 뮤지션 윌아이엠(will.i.am)을 위해 세상에 한 대뿐인 자동차를 선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 G-Class의 얼굴과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쿠페의 차체를 합쳤다.

소외 계층 중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알리고자 만들었다.

메르세데스-AMG는 이 차의 제작 과정을 6부작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칸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출품했다.

Writer 김기범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통념을 뒤집는 반전

윌아이엠의 본명은 윌리엄 제임스 애덤스 주니어(William James Adams Jr.)다. 1975년 3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싱어송라이터 겸 래퍼이자 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의 리더다. 그는 진정한 팔방미인이다. 인텔의 창조·혁신 담당 이사,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사업, 영화 출연 및 애니메이션 더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이다. 그는 1991년 힙합을 시작했다. 2007년 마이클 잭슨의 새 앨범을 작업했고, 이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곡을 만들었다.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했는데, 300만 장 이상 판매를 기록해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로부터 '3×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전 세계 판매량은 800만 장 이상이며, 2012년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부른 노래 뮤직비디오는 9억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저는 취향에 맞게 변형하길 좋아해요. 제가 디자인한 이 마스크는 마이크와 헤드폰을 겹쳐요. 새로운 제품을 보면 무엇을 더할 수 있을지 생각해요. 전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배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플립(Flip, 뒤집다)’이에요. 비틀고 뒤섞죠. 가령 제임스 브라운의 드럼과 존 콜트레인의 베이스 기타를 섞는 거예요. 그게 힙합 정신이에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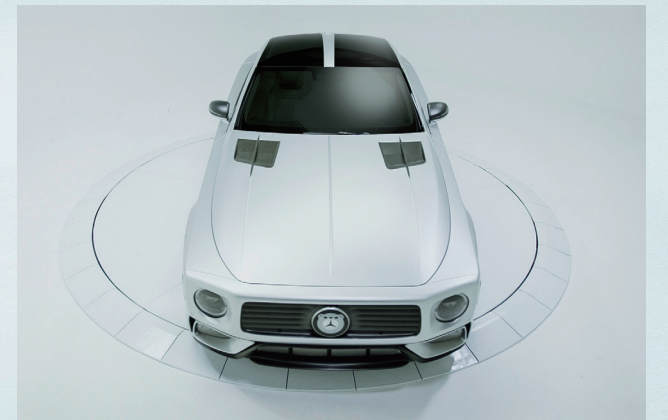
‘월아이AMG’는 외모에서 연상할 수 있듯, 메르세데스-벤츠 G-Class와 메르세데스-AMG SLS 겔왕의 디자인 요소, 메르세데스-AMG GT 63 S 4-도어 쿠페의 차체를 섞어 완성했다. 그 결과 월아이엠이 추구하는 플립의 철학을 절묘하게 구현했다. 극단적으로 긴 보닛과 짧은 꼬무니, 납작한 차체와 거대한 휠, 투박한 앞모습과 매끈한 뒤탈가 이룬 반전이 핵심이다.

도어도 비슷한 개념이다. 전방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듯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경첩을 뒤로 옮겨 앞을 향해 활짝 여는 방식이다. “우린 월아이엠과 세상에서 유일한 AMG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감과 동기를 주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개척 정신은 우리 전통의 일부죠.” 메르세데스-AMG 이사회 회장 필립 쉬머(Philipp Schiemer)의 말이다.

월아이엠은 홍보대사를 맡기 이전부터 메르세데스-벤츠와 AMG의 팬이었다. 메르세데스-벤츠 G-Class와 메르세데스-벤츠 SLS AMG는 그가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차종이다. “전 빈민가에서 자랐어요. 전설적 힙합 아티스트들이 메르세데스-벤츠를 주제로 랩하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 소유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죠. 현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최고를 추구하는 AMG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의 열정은 월아이AMG에 그치지 않았다. ‘곰 목격자(BEAR WITNESS)’라고 이름 붙인 아이콘도 만들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세 꼭지별을 인종과 입매에 대입해 만든 곰 얼굴로, 한정판 의류와 액세서리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월아이AMG’ 옆에 서서 찍은 사진 속에서 그가 입고 있는 야구 점퍼도 그중 하나다. 자세히 보면 세 꼭지별이 곰 얼굴이다.

이번 메르세데스-AMG와 월아이엠의 협업은 표면적으로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하이브리드 홍보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빈민가 소외 계층 중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STEAM’ 프로젝트에 있다. 여기에 필요한 기금은 곰 아이콘을 새긴 한정판 제품을 판매한 수익 중 일부에서 충당한다. 월아이엠은 이 같은 목적으로 아이엠/엔젤 재단을 운영 중이다.



한국과의 인연도 남다르다. 2007년 그가 이끄는 블랙 아이드 피스의 첫 내한 공연 이후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다. K-팝에 관심이 많아 2NE1의 미국 진출 앨범 프로듀서도 맡았다. 특히 씨엘의 빅 팬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체크 잇 아웃(Check It Out)’ 뮤직비디오엔 한국인 사회자가 등장해 우리말로 그를 소개하고, 영상은 온통 한국어 자막으로 도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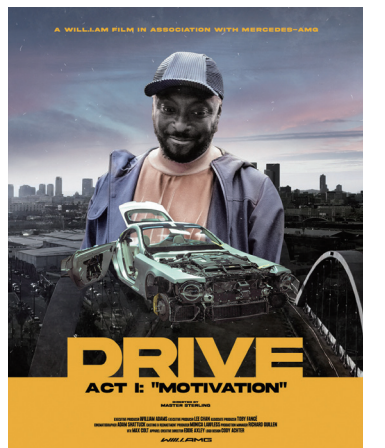
“저는 취향에 맞게 변형하길 좋아해요. 제가 디자인한 이 마스크는 마이크와 헤드폰을 겹쳐요. 새로운 제품을 보면 무엇을 더할 수 있을지 생각해요. 전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배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플립(Flip, 뒤집다)’이에요. 비틀고 뒤섞죠. 가령 제임스 브라운의 드럼과 존 콜트레인의 베이스 기타를 섞는 거예요. 그게 힙합 정신이에요.”

사실 플립은 그의 정체성과도 잘 부합하는 단어다. “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태어나 멕시코인 이웃과 함께 자랐고, 온통 백인 뿐인 학교를 다녔어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죠. 그런데 이런 허들이야말로 오늘날의 저를 만든 자양분이라고 생각해요.” 월아이엠의 설명이다. 그가 추구하는 플립은 기존의 한계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인 셈이다.



월아이엠이 만든 플립(Flip)의 제작 과정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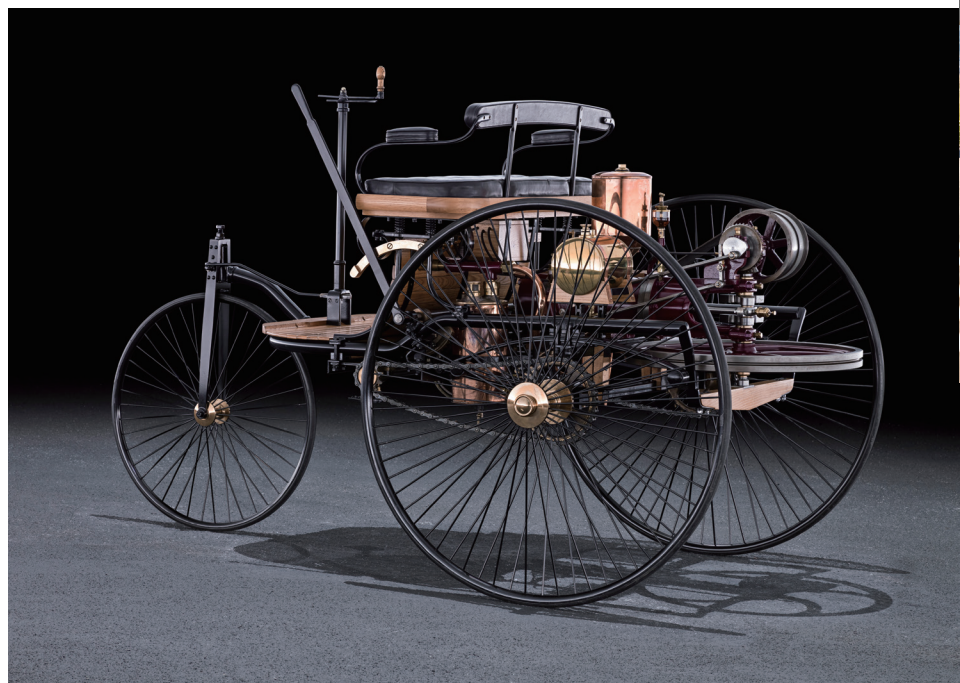
메르세데스-벤츠의 120년 모터 역사가 한자리에 Classic Days 2022

지난 8월 5~7일, 독일 뒤셀도르프의 그린 파크에서 치른 '클래식 데이즈 2022'에 메르세데스-벤츠의 주요 경주차가 모였다.

특히 자동차를 시작으로, 1902년형 메르세데스-심플렉스 40hp, 1932년형 SSKL 아부스 레이싱카, 1952년형 300 SL 레이싱 스포츠카, 2019년 선보인 비전 메르세데스 심플렉스가 모여 120여 년의 모터스포츠 역사를 기념했다.

Writer 김기범(자동차 칼럼니스트)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굵직한 배기음이 서서히 가까워진다. 진동에 고막이 파르르 떨릴 즈음, 고글 낀 라이더와 드라이버들이 속속 코너를 돌아 나온다. 이들이 지나간 뒤엔 매캐한 배기 가스 and 오일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겠지만, 아쉽게도 유튜브를 통한 간접 체험은 시각과 청각까지만이었다. 너무나 부럽지만 우리에게 없는 자동차 문화, 바로 각양각색 클래식카가 모인 축제 현장이다. 지난 8월 5~7일, 독일 뒤셀도르프를 무대로 치른 '클래식 데이즈 2022'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명차들을 선보였다. '클래식 데이즈'는 지역을 바꿔가며 진행되는 브랜드 개념의 타일이다. 따라서 매번 다른 부제를 붙이는데, 뒤셀도르프에서는 '문화 및 자동차 라이프스타일 축제(Festival of Culture & Motoring Lifestyle)'였다. 행사는 라인강 인근 나무 1,500그루 이상이 에워싼 40만㎡의 '그린 파크'에서 치렀다. 메르세데스-벤츠 이외에 BMW, 아우디, 폭스바겐, 부가티, 벤틀리, 란치아 등 다양한 국적과 브랜드의 경주차와 모터사이클이 참가했다. 이번에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 메르세데스-벤츠 클래식이 자사의 모터스포츠 120년 역사를 기념해 앞세운 다섯 차종을 소개한다.



벤츠 페이턴트 자동차(1886)

1886년 1월 29일, 만하임 출신 엔지니어 카를 벤츠가 '가스 엔진 작동 차량'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특허 번호는 'DRP 37435'였는데, 자동차의 출생증명서로 간주된다. 세계 최초의 가솔린 엔진 자동차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도 특허(patent) 자동차다. 삼륜 자전거에 소형 엔진을 얹은 형태였다. 1888년, 벤츠의 아내 베르타는 두 아들을 태우고 만하임에서 포르츠하임까지 100km를 달렸다. 이후 특허 자동차는 개인 이동성의 새 시대를 열었다. 이날 그린 파크에서도 베르타 역할의 대역 배우가 함께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Benz Patent-Motorcar	
제작 연도	1886년
실린더	1기통
배기량	954cc
최고출력	0.5마력
최고속도	16km/h



메르세데스-심플렉스 40마력(1902)

120년 전, 이보다 더 빠르고 더 성공적인 차는 없었다. 1902년 4월 4~11일, 프랑스에서 열린 모터스포츠 행사 '니스 위크'에서 메르세데스-심플렉스 40마력은 라이벌을 압도했다. 운전대를 친 영국인 E. T. 스테드는 평균 시속 55.2km로 코스 신기록을 세웠다. 알버트와 빌헬름 등 다른 두 드라이버 역시 이 차로 2~3위를 차지해 포디엄을 씹살이했다. 이름의 40마력만 보고 알잡아봐선 곤란하다. 배기량이 무려 6,785cc였다. 또한 설계 최고속도는 시속 75km였지만, 실제 경주에서는 시속 120km를 넘어 세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Mercedes Simplex	
제작 기간	1902~1905년
실린더	직렬 4기통
배기량	6,785cc
최고출력	40마력
최고속도	75km/h

Classic Days 2022
현장 속으로





메르세데스-벤츠 300 SL 레이싱 스포츠카(1952)

1952년 메르세데스-벤츠는 코드 네임 W 194의 300 SL을 경주에 출전시켰다. 매우 가벼우면서 비틀림에 강한 강관(튜브) 프레임을 밀바탕 삼고 유선형 경합금 차체를 씌웠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강관이 차체 옆면을 가로질러 운전자가 드나들 문을 달기 애매했다. 지붕에 경첩을 단 걸쭉 도어가 태어난 배경이었다. 300 SL은 데뷔 이후 탁월한 성적으로 베른 그랑프리,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 등 각종 경주의 우승컵을 휩쓸었다. 잊을 만하면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에 팔려 해외 토픽을 장식하는 귀한 몸이기도 하다.



Mercedes-Benz 300 SL	
제작 연도	1952년
실린더	직렬 6기통
배기량	2,996cc
최고출력	170마력
최고속도	240km/h



메르세데스-벤츠 SSKL AVUS 레이싱카(1932)

1932년 5월 22일, 독일 베를린 남서쪽에 자리한 서킷 'AVUS(Automobil Verkehrs und Übungs Straße, 자동차 운행 및 주행시험용 도로란 뜻의 독일어 약자)'에서 국제 경주가 막을 올렸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가적 자존심을 건 속도 경쟁이 광기로 치달을 즈음이었다. 이날 시속 230km로 달려 우승한 자동차가 메르세데스-벤츠 SSKL 아부스 레이싱카다. 공기역학 전문가가 경합금으로 빚은 독특한 차체 때문에 관객들이 '오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탁월한 성과로 이후 경주차 설계의 원칙을 송두리째 바꾼 주역이기도 하다.

Mercedes-Benz SSKL AVUS	
제작 연도	1932년
실린더	직렬 6기통
배기량	7,065cc
최고출력	240마력(슈퍼차저 포함 시 300마력)
최고속도	235km/h



비전 메르세데스 심플렉스

그야말로 레트로다. 이름뿐 아니라 외형마저 아련한 과거를 추억하게 만든다. 비전 메르세데스 심플렉스는 2019년 메르세데스-벤츠의 자체 행사인 '디자인 에센셜'을 통해 등장한 콘셉트카다. 당시로부터 118년 전인 1901년 '니스 위크'에서 화제를 모은 메르세데스 35마력을 미래적으로 재해석해 오마주한 결실이다. 이날 한 세기 이상의 세월이 무색하게 두 대의 심플렉스는 같은 하늘 아래 나란히 섰다. "강한 브랜드만이 역사와 미래를 물리적으로 공생시킬 수 있죠." 이날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디자인 총괄, 고든 바그너가 남긴 말이다.



가장 효율적인 전기차 공장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이 유연한 전기차 생산망을 구축 중이다. 독일 진델핑겐에선 최고급 전기차, 독일 브레멘과 헝가리에선 2024년부터 중형 전기차, 독일 라슈타트와 헝가리에선 엔트리급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한다. 미국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에선 전기 SUV, 베이징에선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한 차종을 만든다. 지역별 공장에서 만들 차종과 특징을 소개한다.

Writer 김기범(자동차 칼럼니스트)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톱엔드(Top-end)’와 ‘코어(Core)’, ‘엔트리(Entry)’. 지난 5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이 프랑스 코트다쥐르에서 열린 ‘욕망의 경제(Economics of Desire)’ 행사에서 밝힌 장기 전략의 핵심이다. 향후 집중할 세 가지 제품군을 뜻한다. 명분은 뚜렷하다. 수익성 갖춘 성장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럭셔리 자동차 제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현재 메르세데스-EQ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총 6개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스페인 비토리아는 밴 공장).

Mercedes-EQ — Production plants for electric vehicles



* Mercedes-Benz Vans

6개 거점 중심의 새 전략은 고도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 등을 통해 이미 공장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 전략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톱엔드와 코어 부문에 투자의 75%를 집중할 계획이다. 톱엔드 럭셔리는 메르세데스-AMG와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메르세데스-EQ의 최고급 모델, S와 G, GLS 등을 포함한다. 코어 럭셔리는 E와 C-Class, EQE와 EQE SUV 등 판매의 주축이 되는 차량을 일컫는다. 엔트리는 2024년부터 출시할 차세대 소형차다. 2020년 12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앰비션(Ambition) 2039’를 통해 “2039년까지 자동차 가치 사슬과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이산화탄소(CO₂)’ 중립적인 신차를 선보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이 법으로 정한 시한보다 11년이나 빠른 목표다. 따라서 전기차 전용 포트폴리오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 거점도 착실히 준비 중이다. “최근 메르세데스-EQ 차종을 성공적으로 출시한 뒤 다음 단계를 밟고 있어요. 우린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이사 외르크 부르처(Jörg Burzer)의 설명이다. 6개 거점 중심의 새 전략은 세 그룹으로 나눈 제품 계획과 맞물려 고도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한다.

대륙 넘나드는 생산 포트폴리오

독일 진델핑겐

토폰드 럭셔리 생산의 선두 거점은 독일 진델핑겐(Sindelfingen)이다. 단지 내 새로 지은 '팩토리 56(Factory 56)'에서 지난해부터 S-Class와 더 뉴 EQS를 만들고 있다. AGV(무인 운반차) 400대와 사물인터넷을 갖춰 프로그램만 조정해 다양한 차종 생산을 변화무쌍하게 소화한다. 2025년부터 AMG,EA 플랫폼에 기반한 메르세데스-AMG의 전기차도 만든다.



독일 공장에서 EQS를 만들고 있다.
2025년부터 메르세데스-AMG의 전기차도 만든다.



EQB를 제작하는 공장.
2024년부터 MMA 기반의 엔트리 럭셔리 차종과 MB,EA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코어 럭셔리 차종을 만든다.

헝가리 케치케메트

다음은 헝가리의 케치케메트(Kecskemét) 공장으로, A와 CLA, CLA 슈팅 브레이크의 AMG 및 PHEV 버전을 만들고 있다. 이 공장은 지난해부터 더 뉴 EQB를 생산 중이다. 헝가리 최초의 전기 양산차로도 의미가 남다르다. 나아가 2024년부터는 MMA 기반의 엔트리 럭셔리 차종과 MB,EA를 빼대 삼은 코어 럭셔리 차종 생산에 동참할 예정이다.



EQC와 EQE 생산 공장. 메르세데스-AMG SL의 전기차 버전 등 MB,EA 플랫폼 전기차도 생산할 예정이다.

독일 브레멘

독일 북부 함부르크 인근의 브레멘(Bremen) 공장은 2019년 5월 EQC를 시작으로, 몇 달 전부터 더 뉴 EQE 생산을 시작했다. 그 밖에 C와 E, GLS-Class를 비롯한 쿠페와 에스테이트, 카브리올레 등 주요 파생 모델도 만들고 있다. 2020년대 중반부터 메르세데스-AMG SL의 전기차 버전 등 MB,EA 플랫폼을 밑바탕으로 한 전기차도 소화할 예정이다.

독일 라슈타트

역시 독일에 자리한 라슈타트(Rastatt) 공장은 지난해부터 EQA를 생산 중이다. 동시에 엔진 및 PHEV를 얹은 A와 B, GLA도 만들고 있다. 2024년부터는 MMA 플랫폼을 바탕으로 엔트리 럭셔리 중 소형 전기차를 만들 예정이다. 나아가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E급의 파생 모델을 기존의 7개에서 4개로 줄일 계획이다.



EQA를 생산 중이다. 2024년부터 엔트리 럭셔리 중 소형 전기차도 만든다.



중국 시장용 EQC와 EQA, EQB, EQE를 생산한다.

중국 베이징

중국 베이징 공장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수출이 아닌, 내수 시장 공급을 목표로 삼은 까닭이다. 2005년부터 합작회사 베이징 벤츠 오토모티브(BBAC)가 운영 중인데, 메르세데스-EQ의 4개 차종을 맡았다. 2019년 EQC와 2021년 EQA, EQB에 이어 최근 더 뉴 EQE 생산을 시작했다. 그 밖에 중국 전용 A와 C, E-Class의 롱휠베이스 버전 등을 만든다.

미국 터스컬루사

마지막은 미국 앨라배마주의 터스컬루사(Tuscaloosa) 공장이다. 원래 GLE와 GLE 쿠페, GLS, 마이바흐 GLS 등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SUV 생산 거점으로, 같은 장르의 전기차 역시 담당한다. 최근 EQS SUV 생산을 시작했고, 조만간 EQE SUV도 만들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네트워크도 촘촘히 짰다. 독일 카멘츠(Kamenz)와 헤델핑겐(Hedelfingen), 폴란드 야보르(Jawor), 중국 베이징, 태국 방콕, 미국 터스컬루사 등 3개 대륙에서 배터리를 생산 중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 등을 통해 전 세계 공장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 중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엠비션 2039'는 막연한 청사진이 아니다. 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통해 달성할 목표다.



전 세계로 공급할 EQS SUV와 EQE SUV를 생산한다.

포뮬러 E 서울 더블 챔피언

Mercedes-EQ

메르세데스-EQ 포뮬러 E 팀이 지난 8월 13~14일 대한민국 서울 잠실에서 치른 레이스에서 드라이버와 팀 모두 정상에 올랐다.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더블 챔피언에 올랐다.

Writer 김기범(〈로드테스트〉편집장)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메르세데스-EQ 팀의 포뮬러E 머신인, 실버 애로우 02가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질주하고 있다.



지난 8월 13~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ABB FIA 포뮬러E 월드 챔피언십' 15~16라운드를 치렀다.

시즌 8의 마지막 장식한 레이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새까만 아스팔트 품은 레이스 트랙으로 변신했다. 몇 년 전부터 서울 경기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로 번번이 연기했던 'ABB FIA 포뮬러E 월드 챔피언십(이후 포뮬러E)'이 드디어 개최되었다. 분리대를 사이에 두고, 포뮬러E 머신과 광역버스가 함께 달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중계 화면에 나오는 한글 표지판이 낯설면서도 정겨웠다.

지난 8월 13~14일, FIA(국제자동차연맹)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잠실종합운동장을 무대로 2021~2022년 시즌 8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5~16라운드를 진행했다. 이번 경기는 여러모로 의미가 남달랐다. 2014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통산 99~100번째 레이스기도 했다. 또한 2세대 경주차가 달리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서울 경기의 공식 명칭은 '2022 하나은행 서울 E-프리(E-PRIX)'. 참고로, '프리'는 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연말 시작한 시즌 8에는 총 11개 팀과 22대의 경주차, 22명의 드라이버가 출전했다. 올해 레이스는 멕시코시티에서의 3라운드를 시작으로, 로마와 모나코, 베를린, 자카르타, 마라케시, 런던을 거쳐 서울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포뮬러 E는 사가지 도로를 이용한 임시 트랙에서 치른다.

2세대 포뮬러 E 머신의
최고출력은 250kW(약 338마력),
0→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2.8초 미만, 최고속도는
시속 280km다. ‘스파크 레이싱
테크놀로지’란 회사가 독점
공급한다. 관람 재미를 높이기
위해 최대 80dB의 인공 사운드를
내지만 여느 자동차 경주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조용하다.
덕분에 도심 한복판에서도 소음,
공해 없이 레이스가 가능하다.



폭이 좁고 급한 코너가
 많아 추월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크다.



드라이버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 여기 들어오는 불빛으로
주행 모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포뮬러 E 머신은 0→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2.8초 미만,
최고속도 시속 280km의 성능을 낸다.



연습과 예선, 결승 하루에 소화

포뮬러 E는 하루에 연습과 예선, 결승을 다 마친다. 1차 45분, 2차 30분의 연습 뒤 직전 경기 결과에 따라 4~6개 그룹으로 나눠 1시간 동안 캘리파잉(예선)을 치른다. 여기까진 경주차의 파워를 100% 다 쓸 수 있다. 이때 랩타임으로 7위 이하의 출발 순서를 정한다. 상위 6명은 다시 한 랩씩만 도는 ‘슈퍼 폴’로 결승 출발 순서를 정한다. 결승은 45분+1바퀴로 치른다. 최고출력은 220kW(약 268마력)로 제한한다. 그 대신 ‘팬 부스트’가 있다. 경기 6일 전부터 시작 후 15분까지 진행한 시청자 투표 결과에 따라 상위 5명 선수를 정한다. 경기 시작 22분 이후부터 5초 동안 25kW를 추가로 딱 한 번 쓸 수 있다. 타이어는 18인치로 트레드 새긴 한 종류만 끼운다. 시즌 8의 공급사는 한국타이어다. 2세대 포뮬러 E 머신의 최고출력은 250kW(약 338마력), 0→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2.8초 미만, 최고속도는 시속 280km다. ‘스파크 레이싱 테크놀로지’란 회사가 독점 공급한다.



코로나19로 두 차례 연기한 끝에 드디어 서울에서 경기를 개최했다.

관람 재미를 높이기 위해 최대 80dB의 인공 사운드를 내지만 여느 자동차 경주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조용하다. 덕분에 도심 한복판에서도 소음, 공해 없이 레이스가 가능하다.

두 시즌 연속 더블 챔피언 올라

지난 8월 14일, 스토펬 반도르른(Stoffel Vandoorne)이 모는 메르세데스-EQ 실버 애로우(Silver Arrow) 02가 결승선을 지나는 순간 팀 피트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스토펬이 2위로 들어오면서 메르세데스-EQ 포뮬러 E 팀이 드라이버와 팀 부문 양쪽에서

시즌 8의 더블 월드 챔피언십을 확정 지었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에 이은 2년 연속이라 더 뜻깊었다. 스토펬 반도르른은 “이번 시즌 우리의 성과가 매우 자랑스럽다. 일관성이 결정적 요소였다. 시즌 마지막이자 통산 100번째 레이스의 시상대에 오를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메르세데스-EQ 포뮬러 E 팀의 이안 제임스 감독은 “4년 전 포뮬러 E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무도 이 같은 성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모두 팀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19/2020의 시즌 6부터 포뮬러 E에 참가했다. 첫 해 성적도 드라이버 2위, 팀 3위로 훌륭했다. 이후 시즌 7에 이어 올해까지 더블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포뮬러 E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2014~2021년 무려 8년 동안 F1의 최강자로 군림해온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F1 팀과 더불어 엔진과 전기 레이스 양쪽을 모두 지배하고 있다.

추월 쉽지 않은 고난이도 코스

이번 레이스는 일반 도로와 주경기장 등 잠실종합운동장 내부를 가로지르는 코스에서 치렀다. 총길이 2.7km, 코너는 22개다. 직선로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 도로에 출발 및 도착 지점을 마련하다 보니 정작 가장 흥미진진한 구간에 관람석이 없어 아쉬웠다. 전체적으로 코스의 폭이 좁고 코너가 급해 더욱 속도감을 느낄 수 있었고 추월 또한 어려웠다.

첫 운영인 만큼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마쳤다. 포뮬러 E

는 서울 레이스를 끝으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12월 13~1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즌 9의 막을 올린다. 시즌 9부터는 3세대 경주차를 투입한다. 최고속도를 시속 321km로 높여 한층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펼칠 전망이다. 내년 서울 레이스 일정은 5월 20~21일로 올해보다 빠르다. 잠실종합운동장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서울 내 다른 장소도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시즌 9에서는 세 꼭지별 앞세운 메르세데스-EQ 포뮬러 E 팀을 볼 수 없다. 맥라렌에 팀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기차 개발을 위한 자원의 전략적 재집중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NOTICE

더클래스 효성의
포뮬러 E 현장 고객 초청 이벤트



더클래스 효성과
함께하는
Mercedes-EQ
포뮬러 E 코리아
현장 속으로

세계적인 모터스포츠를 안방에서 감상할 기회는 흔치 않다. 행사 현장에서 서울 레이스 일정에 맞춰 꾸민 EQ 하우스를 중심으로, VIP 대상 로열박스 식음료 서비스, 레이싱 게임 아트랙션, 메르세데스-EQ 컬렉션 판매, 더뉴 EQS 시승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더클래스 효성도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VIP 로열 박스에 고객 초청 이벤트를 진행했다.



포뮬러 E 머신은 다음 시즌 3세대로 진화할 예정이다. 출력과 최고속도를 크게 높인다.



메르세데스-EQ의 스토펠 빈두르이 이번 시즌 드라이버즈 챔피언에 올랐다.

더블 챔피언의
경쟁사를 맞은
메르세데스-EQ 팀의
이안 제임스 감독



메르세데스-EQ가 올 시즌 팀 챔피언을 차지했다.



메르세데스-EQ는 올 시즌을 끝으로 포뮬러 E를 떠날 계획인데, 멋진 플레이와 탁월한 성적으로 깊은 여운을 남겼다.

내년 메르세데스-EQ 팀은 맥라렌으로 타이틀을 바꿔 출전한다.



더가깝게 다가온 메르세데스-벤츠의 품격 더클래스 효성 하남 서비스센터· 인증 중고차 전시장 오픈

경기도 하남에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센터와 인증 중고차 전시장이 문을 열었다.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은 데다 일반 점검과 사고 수리는 물론 인증 중고차 상담과 구매까지 가능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Writer 두경아 Photo 임익순



경기도 하남은 수도권 중동부 교통의 요지로 꼽힌다. 수도권제1순 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이 지나며, 세종포천고속도로(서울세종고속도로)까지 완공 예정이라 서울과 경기, 어디서든 찾아오기 좋은 조건을 갖췄다. 바로 이곳에 더클래스 효성 하남 서비스센터·인증 중고차 전시장이 지난 9월 1일 문을 열었다. 그간 서울 강동구와 경기 동부 지역에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센터가 없었던 터라, 멀리 타 지역까지 서비스센터를 찾아가야 했던 고객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클래스 효성 하남 서비스센터·인증 중고차 전시장은 총연면적 7,455㎡(약 2,259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서비스센터는 총 20개의 워크베이를 갖췄는데, 이는 하루 최대 50여 대, 월간 최대 1,000여 대 차량의 정기 점검과 일반 정비 등이 가능한 규모다. 특히 이 지점에는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전기차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어 더욱 반갑다. 전기차 전문 자격인 '메르세데스-벤츠 공인 고전압 전문가'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들이 메르세데스-벤츠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EQ 차량의 정비를 완벽히 소화해낸다.

2층에 위치한 인증 중고차 전시장은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총 13대의 차량을 전시할 수 있다. 전시장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디지털 인테리어 콘셉트인 'MAR 2020'을 적용해 스마트하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며, 프리미엄 고객 라운지와 컨설팅 룸까지 갖춰져 있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량을 경험하고 구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센터와 인증 중고차 전시장이 한 건물에 있으니 시너지도 좋다. 차량 점검을 위해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가 대기 시간 중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으며, 인증 중고차 구입 후 만일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구입한 지점에서 수리까지 맡길 수 있다.

더클래스 효성은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으로 전국 26개의 서비스센터 및 전시장, 인증중고차 전시장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클래스 효성 인증 중고차 하남 전시장

더클래스 효성 인증 중고차 하남 전시장은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Mercedes-Benz Certified 판매 서비스로서 투명하고 안전한 구입을 약속드립니다. Mercedes-Benz 브랜드의 신뢰있는 인증중고차 거래를 경험하십시오

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 188
문의 : 02-3433-1999



“넓은 전시장에서
믿을 만한 인증 중고차를
만나보세요”

더클래스 효성 인증 중고차 하남 전시장 이용준 지점장

더클래스 효성 인증 중고차 하남 전시장은 메르세데스-벤츠 더클래스 효성이 죽전, 천안에 이어 전국에 세 번째로 문을 연 인증 중고차 전시장이다. “하남 전시장은 전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인증 중고차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더클래스 효성 하남 서비스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혹여나 차량 문제 발생 시 서비스까지 더욱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하남 인증 중고차 전시장의 이용준 지점장은 큰 규모의 서비스센터와 고객 라운지를 갖춘 전시장을 소개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보통 중고차 하면 ‘남의 손을 탄 차’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전시장에 와서 보면 ‘이게 정말 중고차야?’라고 할 정도로 관리가 잘된 차들이 많아요.”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차이기에 더욱 신뢰가 간다.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는 6년 또는 15만km(선도래 기준) 이내 무사고 차량을 매입해 198가지 정밀 점검을 거쳐 판매한다. 더욱이 차량 주행거리와 정비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더욱 안심이다.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망설이는 부분이 ‘차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거예요. 인증 중고차의 경우 사고나 부품 교환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차들은 매입하지 않아요. 매입한 차들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198가지 인증 절차를 마친 후 판매되고, 보증 기간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이 인증 중고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지점장은 2001년 자동차 영업 딜러 일을 시작해 독일 3사 차량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오다가, 2008년 더클래스 효성에 입사했다. “제 역할은 판매·매입 직원들의 일이 좀 더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직원들을 더 열심히 지원해서 그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아울러 인증 중고차 하남 전시장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만족과 감동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반 정비와 사고 수리까지
동시에 해냅니다”

더클래스 효성 하남 서비스센터 홍선모 지점장

“그동안 서울 강동이나 경기 동부 지역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센터가 없어서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이 지역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클래스 효성 하남 서비스센터 홍선모 지점장은 “총 20개의 워크베이를 갖춰 하루 최대 50대까지 수리할 수 있으니 서비스센터 중에서는 꽤 큰 편”이라면서, “그 덕분에 더욱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또 있다. “하남 서비스센터에는 일반 정비와 판금·도장 등 사고 수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도심 인근에는 사고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모든 수리를 한 지점에서 할 수 있으니 따로 다른 센터에 갈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지요.” 현재 하남 서비스센터 직원들은 모두 45명. 직원들은 일반 정비 기술자와 판금·도장을 하는 사고 수리 파트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또한 업계 최고의 전기차 전문 자격 ‘메르세데스-벤츠 공인 고전압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들도 상주하고 있다. “그동안 저희는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전기차가 출시되기 전부터 계속 전기차 교육을 받아왔고 인증 자격도 얻었어요. 그래서 일반 엔진 차 수리를 하는 분들도 전기차까지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지요.” 홍선모 지점장은 오랜 정비 경력을 지닌 자동차 전문가다. 2009년 더클래스 효성 서비스센터 지점장이 됐고, 서초 지점장, 구리 지점장을 거쳐 하남 센터 서비스센터가 오픈하면서 지점장으로 발령받았다. “더클래스 효성 하남 서비스센터 지점장으로서 신속, 정확, 친절, 이 세 가지 단어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센터는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꼭 오셔서 저희 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Mercedes-Benz



창립 19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Mercedes-AMG G 63 Hyosung Edition

‘전설의 오프로더’로 인기를 끌고 있는 G-Class가
더클래스 효성과 만나 더욱 특별한 모델을 출시했다.
더클래스 효성만의 감성을 입은 두 번째
‘메르세데스-AMG G 63 효성 에디션’을 소개한다.

Photo 서동현



유니크한 멋을 풍기는 딥 그린 솔리드 논 메탈릭 에디션

지난 9월 30일, 더클래스 효성이 또 한번 주목받았다. 작년 12월에 이어 9개월 만에 새로운 컬러의 ‘G-Class’를 소개한 것이다. 이른바 ‘메르세데스-AMG G 63 효성 에디션’. 더클래스 효성의 창립 19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한정 에디션으로 더클래스 효성의 감성을 담아 특별히 기획해 유니크한 멋을 지니고 있다.

총 네 가지 컬러로 선보이는 한정판

이번 한정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컬러는 총 네 가지다.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데저트 샌드 논 메탈릭 에디션과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더하는 딥 그린 솔리드 논 메탈릭 에디션, 클래식한 편안함과 신비함을 주는 미스틱 브라운 브라이트 에디션, 트래버틴 베이지 메탈릭의 기준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컬러를 선보인다. 이 중 트래버틴 베이지 메탈릭 컬러는 아직 미공개로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선보이는 세 가지 컬러의
메르세데스-AMG G 63 효성 에디션들



22인치 AMG 5 스포크 단조 휠을 써 역동적인 느낌을 살렸다.



플래티넘 화이트와 블랙으로 이루어진
미스틱 브라운 브라이트 에디션의 내부



카본과 DINAMICA 극세사를
적용한 AMG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



사용자 취향에 맞게 세밀하게 조정 가능한
액티브 멀티 컨투어 시트를 적용했다.



뒷좌석 탑승자를 위해 설치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익스테리어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역시 신경 썼다. 모두 최고급 소재의 나파 가죽을 사용해 강력한 주행에도 최상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선사한다. 각 에디션 컬러마다 그와 어울리는 분위기의 인테리어 컬러를 선보이고 있는데 데저트 샌드 논 메탈릭 에디션의 경우 요트 블루와 블랙 컬러의 내장재를, 딥 그린 솔리드 논 메탈릭 에디션은 새들 브라운과 블랙 컬러, 미스틱 브라운 브라이트 에디션의 경우 플래티넘 화이트와 블랙으로 이루어진 투톤 내장재를 적용했다. 안과 밖의 대조적인 컬러를 선택해 더욱 유니크하고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더클래스 효성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독보적인 럭셔리에 대한 경험

더클래스 효성에서 특별하게 선보이는 에디션인 만큼 디자인적 요소 외에 기능적인 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메르세데스-AMG G 63 효성 에디션은 AMG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에 카본과 다이내미카를 적용해 한층 견고하고 품격 있는 G 63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22인치 AMG 5 스포크 단조 휠로 역동적인 포인트를 준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다양한 고객 편의 사항을 결합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슈퍼리어 라인 인테리어와 함께 최신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해 운전자뿐 아니라 탑승자에게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독보적인 럭셔리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에디션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클래스 효성을 통해 본인의 개성과 품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극의 순수 전기 프리미엄 SUV Mercedes-EQ The new EQS SUV

더 뉴 EQS SUV는 메르세데스-EQ의 순수 전기 프리미엄 SUV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쓴 세 번째 차종이다. 더 뉴 EQS 세단과 같은 휠베이스로 최대 7명을 태우는데, 차체가 20cm 더 높아 지형을 가리지 않고 달릴 수 있다. 굴림 방식은 후륜과 사륜, 최고출력은 355~536마력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유럽의 WLTP 기준, 최대 671km다.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하이퍼스크린을 중심으로 펼친 레이아웃과 구성은 더 뉴 EQS와 완벽하다.

마침내 세 꼭지별 전기 SUV의 꼭짓점이 완전히 베일을 벗었다. 지난 9월 29일,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전기차 브랜드 메르세데스-EQ가 더 뉴 EQS SUV를 정식으로 공개했다. 최대 7명이 탈 수 있는 순수 전기 프리미엄 SUV로, 미국 앨라배마주 터스컬 루사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장에서 8월부터 생산했다. 인근 빔카운터의 배터리 공장도 가동을 시작했다.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 밀바탕

더 뉴 EQS SUV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이 대형 전기차용 플랫폼(EVA2)으로 개발한 세 번째 차종이다. 더 뉴 EQS와 더 뉴 EQE가 먼저 나왔고, 조만간 더 뉴 EQE SUV가 네 번째로 합류할 예정이다. 더 뉴 EQS SUV의 휠베이스는 3,210mm로, 더 뉴 EQS와 같다. 하지만 차체 높이가 20cm 더 높고 오프로드 모드를 갖췄다. 덕분에 배바닥 굵을 걱정 없이 지형을 가리지 않고 달릴 수 있다. 더 뉴 EQS의 공기저항계수는 Cd 0.20으로, 양산차 중 가장 낮다. 더 뉴 EQS SUV도 Cd 0.26으로 이 장르에선 탁월하다. SUV는 커다란 덩치와 해치백으로 짧게 끊은 꿈무늬 등 태생적으로 공기저항을 낮추는데 불리한 요소가 많다. 하지만 메르세데스-EQ는 디자인 테마로 정착시킨 부드러운 표면 처리와 밀폐한 그릴 등을 의도적으로 설계해 이 수치를 최대한 끌어내렸다. 실내는 최대 7명을 소화한다. 좌우 독립 2열 및 3열 좌석은 옵션이다. 선풍기 선택 시 1~3열의 머리 공간은 각각 1,035/1,031/900mm로 치우침 없이 넉넉하다. 2열은 전동식으로 앞뒤 130mm, 등받이는 앞으로 14도와

뒤로 4도까지 움직일 수 있다.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 4개를 넉넉히 삼킨다. 또 2열을 접을 경우 최대 2,100L까지 확장할 수 있다.

355~536마력, 최대 671km 주행

글로벌 첫 출시 모델은 후륜구동인 더 뉴 EQS SUV 450+와 사륜구동인 더 뉴 EQS SUV 450 4MATIC, 더 뉴 EQS SUV 580 4MATIC 등 세 가지로 구성했다. 450+와 450 4MATIC은 최고출력이 265kW(약 355마력)로 같다. 하지만 최대토크는 각각 57.9와 81.6kg·m로, 앞 차축에도 전기모터를 물린 4MATIC이 높다. 더 뉴 EQS SUV 580 4MATIC은 400kW(약 536마력), 87.5kg·m로 셋 가운데 제일 강력하다. 최대 12개의 셀로 구성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용량은 108.4kWh로, 10년/25만km까지 70%의 성능을 보증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유럽의 WLTP 기준으로 최대 671km다. 멀티 링크 방식의 에어 서스펜션과 최대 4.5도(옵션 최대 10도)의 뒷바퀴 조향을 기본 장비로 갖춰 메르세데스-벤츠 특유의 승차감과 덩치를 잊게 만들 만큼 민첩한 몸놀림을 완성했다. 성능도 출중하다. 더 뉴 EQS SUV 580 4MATIC 기준으로, 0→시속 100km 가속 시간 4.6초, 최고속도는 시속 210km다. 또한 무선 업데이트(OTA)의 범위를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등으로 더욱 확장시켰다. MBUX도 더욱 똑똑해져서 일단 음성을 인식시키고 나면, “안녕, 벤츠”라고 부르지 않고도 곧장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더 뉴 EQS SUV는 더 뉴 EQS와 밀바탕이 같지만 최대 7명을 태우고 차체가 20cm 더 높다.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 디지털 계기판



앞뒤 램프는 LED로 불 밝힌다.



SUV로선 탁월한 공기저항계수를 뽐낸다.

전기 비즈니스 세단의 미래

Mercedes-EQ The new EQE 350+

메르세데스-EQ가 더 뉴 EQE를 국내에 출시한다. EQ 브랜드의 두 번째 세단으로, 엔진을 얹은 동급 E-Class보다 크고 널찍하다. 검정 패넬로 막은 그릴과 날렵한 헤드램프, 활에서 영감 얻은 실루엣 등 메르세데스-EQ 브랜드 특유의 테마로 디자인했다. 더 뉴 EQE는 덩치만 상대적으로 아담할 뿐 그 안에 품은 첨단 기술은 만형 더 뉴 EQS와 차이가 없다.

Writer 김기범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더 뉴 EQE는 EQ 브랜드의 두 번째 세단으로, E-Class보다 크고 널찍하다.

더 뉴 EQE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전기차 브랜드, 메르세데스-EQ가 더 뉴 EQS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프리미엄 세단이다. 차급을 상징하는 모델명 마지막 글자가 암시하듯 E-Class급 중형이다. 더 뉴 EQS와 마찬가지로, 메르세데스-EQ의 프리미엄 전기차 아키텍처 'EVA2'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생산은 독일 브레멘(글로벌)과 중국 베이징(중국) 공장에서 맡는다.

E-Class 웃도는 덩치와 공간

더 뉴 EQE의 덩치는 만형 EQS를 살짝 밀돈다. 엔진 얹은 메르세데스-벤츠 가운데 CLS와 비슷하다. 휠베이스는 3,120mm로, EQS보다 90mm 더 짧다. 하지만 파워트레인 관련 부품을 바닥에 납작하게 깔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이점을 살렸다. 그 결과 동급인 E-Class보다 안팎 모두 한층 여유롭다. 예컨대 실

내 길이는 80mm, 앞좌석 어깨 공간은 27mm 더 넉넉하다. 디자인은 메르세데스-EQ 브랜드의 전형적 특징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보닛과 지붕, 트렁크를 잇는 실루엣은 매끈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을 머금었다. 줄을 힘껏 당긴 활에서 영감 얻은 '원보우(one-bow)' 라인으로 다듬은 결과다. 아울러 운전석을 앞쪽으로 바짝 당긴 '캡포워드(cab-forward)' 스타일로, 고급 세단이 지만 젊고 활기찬 느낌을 불어넣었다. 더 뉴 EQE의 심장은 전기 구동계(eATS)다. 후륜구동은 뒤, 사륜구동(4MATIC)은 앞뒤에 '영구 자석 동기 모터(PSM)'를 얹는다. 회전자에 영구 자석을 달아 전류 공급 없이도 자기를 유지한다. 또한 고정자(스테이터)에 코일을 비스듬히 감아 진동을 최소화했다. 특히 뒤 차축의 모터는 6상 설계로, 120도마다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3상 전기모터보다 훨씬 강력하다.



메르세데스-EQ의 디자인 테마를 살려 테일램프는 좌우로 가늘게 이었다.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팝업 도어 핸들. 조명을 넣어 고급스럽다.

더 뉴 EQS 부럽지 않은 첨단 기능

현재 더 뉴 EQE는 총 네 가지다. 메르세데스-EQ 브랜드로는 350+와 500 4MATIC, 메르세데스-AMG 브랜드로 더 뉴 EQE 43 4MATIC과 53 4MATIC+가 있다. 이 가운데 국내시장에는 뒷바퀴 굴림 방식의 더 뉴 EQE 350+가 먼저 들어온다. 최고출력 215kW(약 288마력), 최대토크 57.6kg·m로, 0→시속 100km 가속 시간을 6.4초에 마치고 시속 210km까지 달릴 수 있다. 90kW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모듈 10개를 엮어 완성했다.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471km 달릴 수 있다. 회전자(로터)엔 냉각수 흡을 심고, 고정자는 핀 모양으로 빚어 전기 모터의 냉각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나아가 폐열은 난방에 활용한다. 또한 더 뉴 EQS처럼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더 뉴 EQE는 옵션으로 너비가 141cm에 달하는 하이퍼스크린을 선택할 수 있다. EQS 세단과 SUV처럼 600g의 활성탄과 흡착 면적이 축구장 150개에 달하는 고효율 미립자 필터로 공기를 정화한다. 옵션인 디지털 라이트는 좌우 각각 130만 픽셀의 해상도를 뽐낸다. 나아가 최대 4.5도의 뒷바퀴 조향이 기본이다.



실내도 형벌인 더 뉴 EQS와 판박이다. 옵션으로 하이퍼스크린도 선택할 수 있다.

가을, 시간이 머무르는 그곳으로

주렁주렁 열린 빨간 사과를 보며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다.
끝도 없이 높은 파란 하늘이 절정에 이른 날, 경북 영주로 향했다.

Editor 박소윤 Photo 임익순

사진 속 차량 모델은 GLC 300 e 4MA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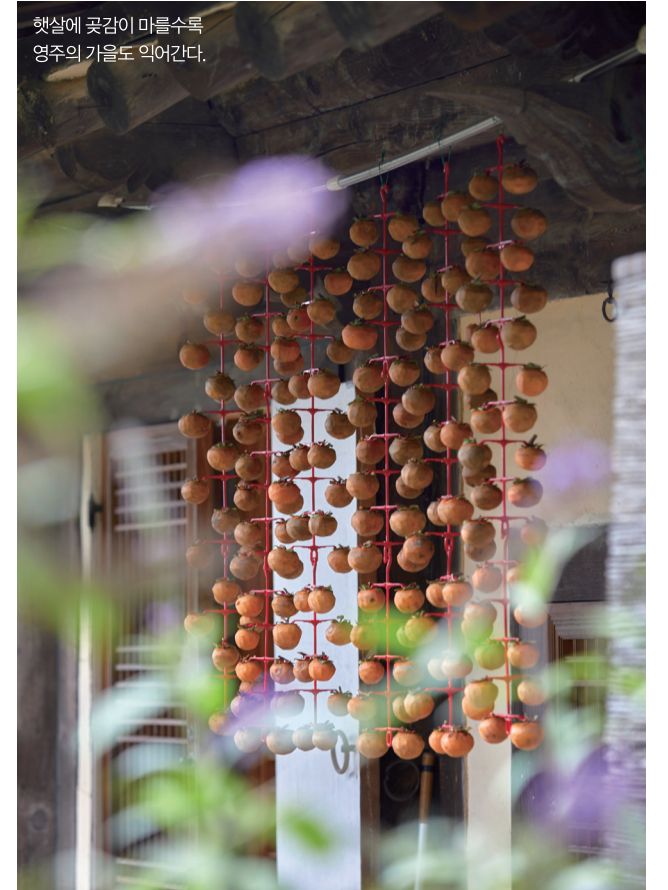
영주 곳곳에 고고한 선비 정신이 가득하다.

영주의 가을은 깊고 푸르다

푸르름이 가득하다. 반짝이는 청기와와 가을 하늘, 아름답리 소나무가 어우러져 마치 조선 시대 어느 마을에서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하다. 영주 문수면에 있는 무섬마을이 특히 그러하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태백산에서 이어지는 내성천과 소백산에서 흐르는 서천이 만나 마을의 삼면을 태극 모양으로 돌아나간다. 잘 빛은 도자기 같기도, 꽃봉오리 같기도 한 그 형세가 물 위에 떠 있는 섬과 같아 수도리(水島里)의 우리말인 무섬마을로 불리게 됐다.

차를 타고 무섬마을에 들어가는 길은 수도교 또는 무섬교 두 가지다. 수도교를 건너면 마을 입구에 바로 닿는다는 동네 어르신에 의해 ‘메르세데스-벤츠 GLC 300 e 4MATIC’을 타고 다리를 건넜다. 초입부터 펼쳐지는 고즈넉한 초가와 기와집에서 그리운 고향 마을의 정취가 느껴진다. 병자호란 이후 은둔 선비의 삶을 실천하고자 처음 이곳에 터를 잡은 반남 박씨 박수가 무섬마을의 입향조다. 100여 년 후에는 그의 증손녀 사위인 선성 김씨 김대자가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 두 성씨가 집성촌을 이뤄 살고 있다. 속세를 떠나 소탈한 삶을 살길 원한 시골 선비의 바람대로,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 단아한 선비 정신이 마을 곳곳에 가득하다. 마을 한쪽에 잠시 차를 세우고 고택과 정자를

햇살에 꽃감이 마를수록 영주의 가을도 익어간다.





용두교와 용미교를 건너면 영주댐의 역사를 간직한 평은역사에 닿는다.

소백산이 내린 선물

산이 영주를 품었는가, 영주가 산을 품었는가. 봉황산 중턱에 있는 부석사로 가는 길, 끝없이 펼쳐진 대자연 앞에서 잠시 영동한 사색에 잠겨본다. 도로를 끼고 양옆으로 제철을 맞은 사과나무가 한껏 붉은빛을 뽐내고, 수확에 여념 없는 농부의 허리는 퍼질 줄을 모른다. 차를 멈추고 탐스러운 사과를 구경하고 있자니 농부 하나가 쓱 다가와 흠집 난 꼬마 사과 하나를 건넨다. 상품성이 떨어져 ‘못난이 사과’ ‘보조개 사과’로도 불리지만, 그 맛만큼은 흠잡을 데 없다. 영주는 연간 일조량이 풍부하고 깨끗한 공기와 물 덕분에 맛과 향이 뛰어난 사과를 생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소백산맥의 영향으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고, 사과 성숙기인 8~10월의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다. 그야말로 자연이 선사한 선물인 셈이다. 허끝에 남아 있는 사과 향을 느끼며 부석사에 오른다. 이제 막 빨간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단풍이 한창이다.



가을 정취가 무르익어가는 사과밭에 제철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다.

따라 걷는다. 땀방울이 선명하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온몸으로 느껴지는 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살짝 뒷집을 지니 그 여유로움이 여느 선비 부럽지 않다. 마을 중심에는 무려 350여 년간 마을과 외부를 잇는 유일한 통로였던 외나무다리가 있다. 가을볕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내성천 위로 길이 150m, 폭 30cm의 아슬아슬한 다리가 수려한 곡선을 이루며 마을 주민들의 발길을 그대로 받아낸다. 사람 1명이 겨우 다닐 정도로 좁아 중간중간 보조 다리가 놓일 정도지만, 의외로 먼저 가라며 양보하는 이들의 웃음소리와 감사 인사가 넘쳐난다. 옛말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된다. 매년 장마철이면 불어오는 강물에 휩쓸려 외나무다리는 무너지고 짓기를 반복해왔다. 그럼에도 무섬 사람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감수했다. 수도교 설치로 잠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던 외나무다리는 2005년에 이르러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됐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개소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처럼, 매년 10월이면 무섬마을의 전통 놀이를 재현한 ‘무섬외나무다리축제’가 열려 영주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다.



코스모스가 절정에 이룬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인근 꽃길



영주를 품은 소백산맥 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부석사



한국의 아름다운 길 중 하나인 무성마을 와나무터리는 영주의 대표 여행지다

무량수전에 도착해 올라온 길을 내려다보니 저 멀리 차곡 차곡 늘어선 산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펼쳐져 한참을 가만히 서 있게 된다. 그 풍경이 사뭇 황홀해 카메라를 꺼내기 보다는 두 눈에 담는 쪽을 택했다. 소백산의 두 번째 선물을 그렇게 찾았다.

흐르지 않아도 아름다운

영주호 오토캠핑장에서 강을 따라 차로 약 10분이면 영주호 용마루 공원에 오를 수 있다. 때마침 솜사탕처럼 몽글몽글 몽친 구름과 높은 가을 하늘이 청정한 호수에 그대로 투영된다. 산과 호수 사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 거대한 거울이라도 가져다 댄 듯하다. 용두교와 용미교를 건너 용마루 2공원으로 향하는 길, 호수 위로 빼꼼 고개를 내민 나뭇가지의 모습이 꽤 생소하다. 영주호는 2016년 영주댐이 만들어지면서 조성된 인공 호수다. 댐 건설로 평은면 금광리·강동리 일대가 수몰됐고, 그 자리를 푸른 호수가 메웠다. 가녀린 가지로 겨우 존재감을 드러내는 저 나무도 몇 년 전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움을 뽐냈으리라.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 모습을 바꾸며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것, 결국엔 사라지는 것. 모두 자연의 섭리임을 되새기며 영주를 기억한다.



푸른 영주호를 끼고 달릴 수 있는 평은면 금광리 인근 드라이브 코스

비즈니스 세단과 스포츠카의 만남

Mercedes-AMG A 35 4MATIC

꼭 필요한 공간과 근사한 비율을 갖춘 세단 차체에 사륜구동 시스템과 306마력을 눌러 담았다.

AMG 고유의 외모로 멋을 냈지만, 운전 감각과 승차감은 의외로 부드럽다.

물론 원할 땐 가슴 철렁한 가속과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 냉정한 핸들링으로 단숨에 도로 위에 예리한 궤적을 그릴 수 있다.

세단과 스포츠카의 교집합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Writer 김기범(자동차 칼럼니스트) Photo 서동현(〈로드테스트〉 기자)



일명 '포식자(predator)' 얼굴에 AMG 요소로 공격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쿠페처럼 미끈하게 빚되 세단의 특성을 슬기롭게 살렸다.



뒷유리와 분리된 트렁크 도어를 갖춘 정통 세단이다.



공기저항계수는 Cd 0.22로, 데뷔 당시 양산차 가운데 가장 낮았다.

A-Class는 메르세데스-벤츠 세단의 막내다. 프리미엄 소형 세단 시장에 브랜드의 뿌리를 단단히 박고, 고객의 평균연령도 더욱 낮출 주역이다. 20여 년 전인 1997년 3월, 메르세데스-벤츠는 A-Class로 소형차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대량생산 브랜드의 허를 찌른 도전이었다.

시장 넓히고 평균연령 낮출 주역

지금의 A-Class는 2018년 나온 4세대다. 1~3세대는 해치백으로만 나왔는데, 이번 세대는 세단까지 아우른다. 데뷔 당시 난 국제 시승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시애틀을 찾았다. A-Class에 기본인 '메르세데스-벤츠 사용자 경험'(이하 MBUX)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70명의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연결성 기술을 깔고담고 있었다. 작은 차 디자인은 늘 메르세데스-벤츠의 고민이었다. 소비자 반발을 의식해 튀는 외모와 구조로 관심을 분산시켰다. 샌드위치 패널과 삼각자 형태의 1세대 A-Class가 좋은 예다. 2세대는 평범한 뼈대를 심은 대신 스포티한 성격을 부각시켰다. 반면 이번엔 정공법을 택했다. 쿠페처럼 미끈하되 세단의 특성을 슬기롭게 살렸다. 공기저항계수는 Cd 0.22다. '감각적 순수성'과 '극단적 곡면'. 201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터뷰한 외장 디자인 총괄 로버트 레스닉이 강조한 지금 세대 메르세데스-벤츠의 조형적 특징이다. 그는 "① 한눈에 메르세데스-벤츠란 사실을 알 수 있고 ② 단박에 세대를 구별할 수 있으며 ③ 뚜렷한 정체성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번 A-Class는 비율마저 근사하고 자연스럽다.



1

1 실내의 중심은 10.25인치 패널 두 장을 붙인 '와이드스크린 디스플레이'다. LG디스플레이가 공급한다. 2 스티어링 휠 오른쪽 스포크 아래에 운전 모드를 바꾸는 다이얼을 심었다. 3 엔진은 직렬 4기통 2.0L 터보로, 최고출력 306마력, 최대토크도 40.8kg·m를 낸다.

비율 좋은 차체에 306마력 담아

시승차는 Mercedes-AMG A 35 4MATIC 세단. 그릴과 범퍼, 휠 등에 AMG의 요소를 더해 외모가 한층 공격적이다. 길이×너비×높이는 각각 4,565×1,790×1,415mm, 휠베이스는 2,730mm다. 실내에서 눈을 흘리는 일등 공신은 '와이드스크린 디스플레이'다. 한 집안 형뻔 차종의 12.3인치 대신 10.25인치 패널 두 장을 붙였고, LG디스플레이가 공급한다. 간접조명 드리운 바람개비(터빈) 모양의 송풍구는 젊은 감각이 물씬 난다. 시트는 날씬하지만 몸을 두루 잘 떠받친다. 쿠션은 꽤 단단하다. 뒷좌석은 실내와 트렁크를 나눈 격벽에 쿠션을 덧씌운 형태. 40:20:40으로 나눠 접을 수 있다. 등받이 두께는 손바닥 한 뼉 남짓이다. 두툼한 D컷 스티어링 휠은 오른쪽 스포크 아래에 운전 모드를 바꾸는 다이얼을 심었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디자인 총괄 고든 바그너가 "CLA와 A-Class를 위해 아껴뒀다"는 일명 '포식자(predator) 얼굴'을 앞세워 교통 정체를 뚫고 교외로 향했다. 엔진은 직렬 4기통 2.0L 터보로, 306마력을 낸다. 최대토크도 40.8kg·m로 강력하다.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통해 상황과 필요에 맞게 다듬은 힘은 4MATIC을 통해 네 바퀴로 골고루 전달한다.



2



3



두툼한 D컷 스티어링 휠이 뜨거운 고성능을 암시한다.



운전 모드에 따라 순한 양과 늠름을 넘나든다.

빠르고 강력하되 편안하고 침착해

잔잔하게 몰 땀 고성능 세단이란 사실을 잊기 쉽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한다. 처음 다뤄도 엇그제 몰던 차처럼 자연스럽다. 자극이 강하던 3세대보다 손맛도 많이 희석시켰다. 불특정 다수를 포용할 성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강하게 몰아붙이면 표정을 180도 바꿔 송곳니를 드러낸다. 괜히 AMG가 아니다. 가속페달을 밟아주면 4기통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청과 팝콘처럼 튀는 블러핑 사운드가 실내를 가득 채우면서 심박수가 요동친다. 0→시속 100km 가속 시간이 4.8초로, 과거 슈퍼카나 꿈꿀 순발력이다. 그런데 눈썹 휘날리게 빠르면서도 침착하다. 따라서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다. 딱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의 희열만 맛볼 수 있다. 이 같은 성향은 이 차의 타깃을 구체적으로 좁힌다. 싱글 혹은 핵가족이고, 세단을 선호하며 편안한 출퇴근과 짜릿한 재미를 모두 원하는 이들과 공감이 좋다. 미끈한 디자인과 상위 1% 안전 기술, 동급 최초의 음성인식 AI는 덤이다. Mercedes-AMG A 35 4MATIC 세단과 더불어 세 꼭지별의 꿈이 성큼 가까워졌다.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Mercedes-AMG A 35 4MATIC	
길이×너비×높이(mm)	4,565×1,790×1,415
최고출력	306마력/5,800~6,100rpm
최대토크	40.8kg·m/3,000~4,000rpm
구동방식	상시 사륜구동(4매트)
0→시속 100km 가속 시간	4.8초
최고속도	시속 250km

A-Class의 '끝판왕'을 원한다면?

Mercedes-AMG A 35 4MATIC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빠르지만, 이 시리즈의 최강을 원한다면 대안이 있다. 바로 Mercedes-AMG A 45 4MATIC+다. 엔진은 직렬 4기통 2.0L로 같은데 트윈 스크롤 터보를 더해 387마력을 낸다. 변속기는 듀얼 클러치 방식까진 같지만, 8단으로 대응 범위가 더 넓다. 그 대신 세단이 아닌 해치백으로만 나온다. 하지만 꿈무늬만 다른 까닭에 운전석에 앉아 둘러보는 풍경은 똑같다. 지붕이 꿈무늬까지 똑같은 해치백의 특성상 짐 공간 활용성은 오히려 더 좋다. 또한 전반적으로 겉모습이 세단보다 쾌활하고 명랑한 분위기다. 화끈한 고성능을 품었지만, 공인연비(복합)도 9.0km/L로 수긍할 만하다.



Black is Right Time to Have, Travel Bag New Collection

해외여행이 점점 자유로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여행용 가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에서도 새 시즌을 맞아 다양한 여행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룩색부터 캐리어까지 특유의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은 물론

어떤 패션에도 무난히 매치할 수 있는 시크한 블랙 컬러 제품을 모았다.

문의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1 여행용 캐리어, M5

짧은 여행에 이용하기 좋은 33L 용량의 캐리어다. 그래파이트와 폴리카보네이트, 나일론, 폴리에탄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튼튼하다. 심플한 디자인에 분리 가능한 스마트 충전기와 마이크로 USB, 압축 패드까지 내장되어 있어 실용적이다. TSA 잠금장치와 하이엔드 히노모토(Hinomoto®) 360도 회전 롤러를 장착하고 전면 포켓은 방수가 된다. 사이즈는 약 40×23×55cm이다.

2 AMG 보스턴백

AMG의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이 느껴지는 보스턴백이다. 100% 폴리에스테르로 마감한 겉감과 100% 폴리아미드 소재의 안감으로 되어 있다. 가방 바깥쪽과 안쪽에 모두 지퍼 달린 여러 수납공간이 있고, 별도의 신발 수납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탈착 가능한 가죽 벨트와 가죽 손잡이가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이탈리아 제품으로 용량은 약 60L, 사이즈는 약 65×26×33cm.

3 AMG 백팩

심플하면서 스포티한 블랙 디자인에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백팩이다. 양방향 지퍼가 달린 메인 수납공간이 2개이며 내외부에 다양한 포켓이 있어 실용적이다. 등받이 부분의 통기성을 강화해 장시간 사용 시 쉽게 땀이 차는 걸 방지해준다. 용량은 25L, 사이즈는 35×17×44cm.



4 그래파이트 룩색

내부 메인 수납공간이 지퍼로 나뉘어 있어 물건을 수납하기 용이하다. 게다가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별도의 포켓과 등받이 쪽에 중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히든 포켓까지 있어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등받이와 어깨 벨트는 쿠션 처리되어 있어 착용감이 우수하고 하단 벨트로 트롤리 손잡이에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다. 용량은 약 23L, 사이즈는 약 31×16×44cm.

5 AMG 캐리어, 7R 마스터

알루미늄 소재의 최고급 캐리어다. 내부에는 2개의 분리식 칸막이와 지퍼 포켓이 있고, 신축성 있는 고정 벨트로 여유 있게 짐을 쌀 수 있다. 캐리어 윗부분과 옆면의 가죽으로 마감한 손잡이와 투피스형 길이 조절 봉 등에 AMG 로고를 각인해 AMG만의 디자인 정체성을 살렸다.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4개의 이중 바퀴 덕분에 이동이 용이하다. 사이즈는 높이 55cm와 70cm 두 가지로 출시된다.

6 모던 블랙 위크엔드 백

폴리우레탄과 폴리에스테르로 발수 가공된 위크엔드 백. 양방향 지퍼로 된 넉넉한 메인 수납공간과 내부에 지퍼 포켓이 있어 꽤 많은 물건을 수납 가능하다. 탈부 가능한 숄더 스트랩이 있어 이동 시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용량은 약 60L, 사이즈는 약 60×30×34cm.

7 MB 스포츠 백

100% 폴리에스테르 발수 원단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내부와 사이트에 넉넉하고 다양한 수납공간이 있어 실용적이다. 안쪽에는 스타 패턴 안감으로 은근한 멋을 더한다. 용량은 50L, 사이즈는 약 60×28×30cm.

■제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토버페스트가 열리는 테레진비제 전경

맥주와 예술을 사랑한 도시

Munich

가을, 독일의 뮌헨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는 시기다.
바로 10월을 대표하는 세계적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열리기 때문.
술과 여행, 예술을 좋아하는 이라면 절대 지나치지 못할 도시다.

Editor 지언 Photo Shutterstock

여행의 목적지를 정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중에서 축제는 여행지를 방문하는 동기이자 목표,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의 추억이 되기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9월 말에서 10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많은 이들이 여행의 목적지를 뮌헨으로 정한다. 뮌헨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세계적 규모의 축제인 '옥토버페스트'를 즐기기 위해서다. 매년 전 세계 700만 명 정도가 이 시기에 같은 이유로 뮌헨을 찾고 있다. 지난 2년(2020~2021년) 동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쉽게도 이 축제가 열리지 못했지만 올해는 과감하게 개최를 결정했다.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볼거리, 처음 보는 이들과도 금세 친해질 수 있는 흥겨운 축제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맥주 축제의 원조, 옥토버페스트를 즐기러 뮌헨으로 떠나보자.



알록달록한 히포드롬 비어 텐트 축제 기간 내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옥토버페스트 행사장 입구

반갑다, 옥토버페스트

옥토버페스트는 1810년 바이에른 왕국 황태자의 결혼식에서 시작됐다. 햇수로 따지면 2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축제다. 하지만 올해 열린 축제는 187회로, 전쟁과 전염병 등으로 인해 26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축제 기간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민속 의상을 차려입은 독일인과 관광객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남자들이 입는 뉘뉘이 달린 반바지에 스타킹 레더호젠(Lederhosen)과 앞치마를 두른 풍성한 치마 차림의 여성용 민속 의상인 드린딜(Drindil)을 거리에서 쉽게 보는 것만으로도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제가 열리는 테레진비제(Theresienwiese)를 찾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많은 사람이 향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금세 도착할 것이다. 이곳에는 뉘뉘의 유명 맥주 회사에서 운영하는 수십 개의 크고 작은 텐트와 놀이공원을 방불케 하는 각종 놀이기구로 가득하다.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텐트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 3대 축제인 옥토버페스트 속으로

옥토버페스트의 첫날인 토요일 오전, 축제 주최자·맥주 회사 관계자·상인·공연자 등 1,000여 명이 뉘뉘 거리를 행진하며 공식적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뉘뉘시를 상징하는 '뉘뉘의 아이(Münchner Kindl)'와 뉘뉘 시장을 태운 화려한 마차가 행렬을 이끌며 맥주 통을 실은 맥주 회사의 마차, 공연자, 상인, 악단 등이 뒤따른다. 이어 정오가 되면 뉘뉘

시장이 첫 번째 맥주 통을 개봉하며 본격적인 옥토버페스트가 시작된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개성을 뽐내는 맥주 텐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예약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정도다. 맥주는 1L 잔에 채워지는데 보통 한 텐트당 하루 1만 잔의 맥주가 팔린다. 가장 큰 텐트는 높이 15m, 8,000석 규모로 프쇼어-브로이로슬(Pschorr Bräurosl)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알코올 농도 5.8%의 맥주를 마실 수 있는데 축제 때 판매되는 맥주 중 가장 약한 것이라고 한다.

14세기부터 이어진 독일 정통 맥주의 맛

옥토버페스트에는 아무 맥주 회사나 참가할 수 없다. 뉘뉘시의 허가를 받은 6개의 맥주 회사만 텐트 운영이 가능하다. 아우구스티너(Augustiner), 하커-프쇼어(Hacker Pschorr), 호프브로이(Hofbräu), 뢰벤브로이(Löwenbräu), 파울라너(Paulaner), 슈파텐(Spaten) 등 14~15세기부터 설립되어 운영 중인 뉘뉘의 정통 양조 회사들이다. 이들은 축제 기간 동안 옥토버페스트용 맥주를 별도로 주조한다. 통상 옥토버페스트용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5.8~6.0%로 보통 맥주(4%)보다 높다고, 맥주 축제의 하이라이트



비어텐트 밝은 놀이공원과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로 북적인다.



Mercedes-Benz Oktoberfest

더클래스 효성에서도 옥토버페스트 시즌을 맞아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했다. 시승을 신청하고 옥토버페스트 행사가 진행 중인 전시장을 방문하면 옥토버페스트 패키지를 증정하는 행사다.



뮌헨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신청사와 마리에네플라츠 광장

는 해가 지고 나서다. 텐트 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의자 위에 올라가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흥겹다. 맥주 맛도 맥주 맛이겠지만 다들 현장의 이런 분위기를 즐기기에 해마다 많은 이가 이곳을 찾는 것 아니겠는가. 올해는 9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보름 넘게 열렸다. 개막식과 폐막식에 진행되는 퍼레이드도 꽤 볼만 하다고 하니 놓치지 말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다면 뮌헨으로

뮌헨을 방문했다면 옥토버페스트의 그늘에 가려 진짜 뮌헨을 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뮌헨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 예술의 도시라 할 수 있다. 독일의 몽마르트르 불리는 슈방빙 지구부터 거대한 도심 공원인 ‘영국정원’, 예술 특구인 쿤슈타레알(Kunstareal) 등을 비롯해 모차르트와 바그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고향으로 ‘오



뮌헨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영국정원



쿤슈타레알에 있는 피나코테크 뮤지엄 야외에 설치된 모던한 조형 작품들



화려한 모습의 뮌헨 오페라 극장 내부

페라의 도시’로 불리기도 한다. 매년 7월이면 이곳에서 유럽 최고의 음악 축제 중 하나인 ‘뮌헨 오페라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1818년에 지은 뮌헨 오페라극장은 1800년대 바그너의 오페라 다섯 작품을 초연한 곳으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그림에 관심이 있다면 쿤슈타레알에 있는 ‘피나코테크 3총사’를 방문해보자. 알테 피나코테크(Alte Pinakothek), 노이에 피나코테크(Neue Pinakothek), 피나코테크 데어 모데르네(Pinakothek der Moderne)를 일컫는 말로, 13~18세기 회화 작품부터 20세기 이후의 현대미술 작품까지 독보적인 컬렉션과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미술관들이다. 대중교통도 잘 갖춰져 있어 도시 어디에서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여행 일정이 여유롭다면 뮌헨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인 영국정원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보자.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규모가 크고 잔디와 호수, 숲, 산책로 등이 잘 구성되어 있어 여행 중 휴식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다.

호텔과 캠핑 사이 그 어디쯤 Glamping

가을에만 누릴 수 있는 자연의 호사 중 최고는 캠핑이 아닐까?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위해 각종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자연 속에서 캠핑의 기분을 만끽하며,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글램핑장을 소개한다.

Editor 이민희 Photo 각 장소 제공



숲속에서 한 박자 느리게 온더락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가평 바위숲, 온더락은 이름처럼 자연의 한복판에 놓인 글램핑장이다.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달까.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숲속에 머무르며 계곡물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무릉도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온더락의 글램핑 숙소는 총 두 종류로 설계되어 있다. 2인실의 T형과 도넛 모양의 C형 중 선택 가능하다. 좀 더 프라이빗한 공간을 선호하는 이라면 C1 숙소를 추천한다. 모든 글램핑은 자연을 마주하고 있으며, 자연의 경사를 그대로 살렸다. 한마디로 자연을 최대한으로 만끽할 수 있다.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생각은 일회용품을 지양한다는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연과 손님 모두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특별한 글램핑장이 아닐까 싶다. 이곳에서 반드시 해봐야 하는 것은 캠프파이어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불멍'도 즐기시길 바란다.

INFO

주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238-106
문의 010-7373-4996





제주의 하늘을 훔쳐온 ‘게르’ 스타빌

별이 쏟아지는 한라산 600m의 고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글램핑장이 있다. 스타빌은 제주의 하늘을 마음껏 감상하며 여유로운 글램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몽골의 주거 형태인 ‘게르’와 비슷하게 만든 숙소는 우드 톤의 모던한 인테리어로,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어메니티가 센스 있게 마련돼 있으며, 해외 호텔 수영장 부럽지 않은 근사한 풀과 탄산 온천이 매력적이다. 신혼부부 사이에서 가장 핫한 글램핑장으로 꼽힌다고 한다. 스타빌에서는 유르트 타입의 객실에 묵는 것을 추천한다. 동그란 원형 숙소 한가운데 누워 천장에 뚫린 구멍으로 별을 바라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캠핑의 감성을 더해줄 다양한 액티비티와 스타키퍼가 제공하는 맞춤형 특별 서비스까지, 아름다운 자연 속 색다른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여름에는 야외 수영장, 겨울엔 탄산 온천, 닥트, 미니 골프 등과 체육관 시설까지 즐길 수 있는 럭셔리 캠핑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INFO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4

문의 064-793-9100



나에게 어울리는 쉼은 무엇일까? 글램파크

‘쉼’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 손님을 맞이한다는 글램파크.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쉼을 숙소에 담고 싶어 이 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은 포천에 새로 생긴 글램핑장으로, 캐러밴 형태의 숙소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는 전부 나무로 시공되어 감성적인 숙소를 찾는 이에게 제격이다. 특히 겨울에는 아늑한 분위기가 배가된다. 테라스 캐러밴, 히노키 캐러밴, 침실 시네마 등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다. 널찍한 중앙공원과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온수풀 수영장은 글램파크의 자랑이다. 야외 수영장은 투명한 돔이 찬 바람을 막아줘 아이들도 따뜻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차로 5분 거리에 마트가 있고, 글램핑장 안에도 매점이 있어 식료품 및 물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숙소 내에서는 빔 프로젝트로 영화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 최고의 감성 캠핑이 되지 않을까. 포천의 백운계곡을 끼고 있어 자연이 선사하는 운치는 덤이다.

INFO

주소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1925-47(글램파크 캠핑장)

문의 010-2312-0935





자연이 만든 건축물 글램트리리조트

2021 iF 세계 건축 디자인 어워드, 2022 독일 디자인 어워드 등 각종 수상을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받은 글램트리 리조트, 숲속의 나뭇잎과 조약돌로 영감을 받아 설계한 개성 넘치는 글램핑 파빌리온은 자연 친화적인 장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안성맞춤일 것이다. 다이내믹한 선형과 원형 형태의 날렵한 모습이 자연 속에 어우러져 있으며,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자연의 일부가 된 것 같은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곳은 특히 가을에 자연의 풍경을 만끽하기 좋다. 서리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을이면 울긋불긋한 단풍을 즐길 수 있다. 숲과 맞닿을 듯한 인피니티 온수풀과 글램트리 전용 계곡도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바비큐장도 마련되어 있어 식사, 놀이 등 리조트 안에서 전부 해결 가능하여 자연 속에서 진정한 호사를 누릴 수 있다.

INFO

주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돌아우길 73
문의 010-6279-1599



환상적인 글램핑의 세계로 한타콜라리조트

판타지(fantasy)와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합친 이름, 한타콜라리조트. 이곳은 이름에 걸맞게 손님들에게 환상적인 글램핑의 매력을 선사한다. 한타콜라리조트의 글램핑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인공 달'을 만날 수 있다.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이 되면 주변 전등과 함께 인공 달이 밝게 빛나며 캠핑의 감성을 더해준다. 또한, 신청하는 이들에 한해 오로라 불명도 즐길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글램핑 동은 총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에는 개별 숯불 바비큐장이 마련되어 있다. 바비큐 재료는 리조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소고기·돼지고기 모듬을 각각 2인, 4인 기준으로 판매한다. 야외 바비큐 전용 그릴과 숯은 별도 구매가 가능하다. 혹시 바비큐를 즐기다가 물품이 부족해 아쉽다면 마트 무료 픽업 서비스를 활용해보자. 이 외에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온수 수영장도 있어 가족, 커플, 친구들과 스파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11월부터 3월까지의 리조트 안에서 송어 낚시와 패들보트 체험 등 이색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INFO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3번길 157-5
문의 031-5175-8802



완벽함을 풀어내는 다양한 방식 강민철 셰프의 ATUM

강민철 셰프가 프렌치를 베이스로 한 컨템퍼러리 세미 다이닝을 선보인다. 완벽함을 다채롭게 풀어내고 있는 그의 두 번째 공간, 아툼(ATUM)이다.

Editor 강은진 Photo 임익순

새로운 명소로 떠올라

요즘 강북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 어딘지 묻는다면 내 대답은 아툼(ATUM)이다. 셰프들의 셰프, 강민철 셰프가 청담 강민철 레스토랑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랴. 강민철이란 이름 석 자가 주는 묵직함으로 충분한데 말이다. 다만 정통 프렌치 음식을 선보였던 강민철 레스토랑과는 달리 아툼은 친근함을 더해 눈길을 끈다. 강민철표 프렌치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이다.

“강민철 레스토랑을 테이블 3개로 다소 프라이빗하게 운영하다 보니 계속 예약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접근하기 쉽고 음식부터 가격까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게 되었죠. 좀 더 많은 분이 제 음식을 맛보면 좋겠단 생각에서요.”

강민철 셰프는 잘 알려진 대로 세계 3대 프렌치 거장의 레스토랑인 조엘 로부송, 알랭 뒤카스, 피에르 가니에르를 모두 거친 최초의 한국인이다. 그런 화려한 이력은 그가 정통 프렌치만을 엄격하

게 고수할 거란 선입견도 준다. 그러나 아툼을 소개하는 강민철 셰프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제가 하고 싶은 요리도 있지만, 대중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리사에게 가장 큰 보람은 내 음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맛있다고 해주는 거니까요.”

다양하게 즐기는 아툼

서울역 그랜드센트럴 빌딩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아툼은 강민철 셰프를 총괄로 한남동 하이엔드 오마카세 스시노아야 김광민 셰프도 함께 했다. 이들은 트렌드에 맞는 음식과 칵테일이나 와인 등 다양한 주류를 틀에 박힌 스타일에서 벗어나 국적을 초월한 새로운 맛을 찾고자 했다. 이런 시도들은 인테리어에서부터 차별화된다. 아툼의 공간은 감각적이면서도 화려한 유럽의 부티크 호텔을 연상시킨다. 비즈니스 모임부터 로맨틱한 기념일까지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퍼블릭한 공간 외에 각기 서로 다

른 테마의 프라이빗 룸 3개를 구성했다. 무엇보다 레스토랑 안에 자리한 바가 인상적이다.

“유럽이나 서양에선 레스토랑 가기 전에 라운지나 리셉션 공간에서 가벼운 식전주를 마시며 예약 시간까지 잠깐 쉬면서 느긋하게 즐기잖아요. 한번 경험해보 분들은 또 그렇게 즐기더라고요. 아툼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강민철 셰프는 식전주로 아툼의 시그니처 칵테일 중 하나인 오렌지 허브 쿨러를 추천했다. 진을 베이스로 바닐라와 오렌지 그리고 허브가 섞여 있는 리큐어를 더한 후, 오렌지주스와 토닉을 더한 진 토닉이다. 버터플라이 꽃차를 인퓨징해 샴페인과 조합한 오묘한 보랏빛 칵테일 로열 에이비에이션도 인기다. 이 밖에도 스모키한 위스키부터 식전·식중주로 어울리는 다이닝 칵테일과 다양한 주류를 갖추고 있어 특별한 리커 타임을 즐기기에 좋다. 레스토랑 섹션에서 음식과 주류를 페어링해도 좋고, 가볍게 바에서 한잔 즐길 수도 있어 매력적이다.

프렌치 기반의 단품 요리 돋보여

아툼의 요리는 접근성이 좋은 단품을 기본으로 한다. 강민철 셰프는 프렌치 요리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한국인의 기호에 맞게 변화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숯불을 십분 활용한 요리가 특징이다. 오픈 주방 안쪽으로 호방한 아르헨티나의 전통 아사도 grill 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직접 불을 입히니 요리의 퀄리티가 수직 상승한다.

“프랑스나 서양에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숯을 피워서 굽는 문화가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인은 숯 향을 좋아하죠. 그런 부분들을 프랑스 요리와 접목했어요. 또, 제가 프랑스에서 생활할 때 비스트로 같은 데서 맛있게 먹었던 가정식처럼 편안한 음식들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레시피를 수정해보았어요.”

‘부당 노아’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도 호불호가 있는 순대와 비슷한 요리인데, 강민철 셰프는 시나몬을 넣어 조린 사과, 감자 튀레 등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향신료 배합에 공을 들여 누가 먹어도





강민철답다에 대하여

아툼은 '완벽함'을 뜻하는 고대 이집트 창조신의 이름이다. 강민철 셰프는 레스토랑을 준비할 때 음식은 물론 음식을 전달하는 플레이트링, 접시, 실내 공간, 흐르는 음악까지 모두 직접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강민철답다는 말이 완벽함을 뜻하는 이유다. 그런 강민철 셰프가 '아툼'을 이름으로 내걸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사는 저답다는 말이에요. 강민철답다. 훌륭한 셰프님도 많고, 좋은 레스토랑도 넘쳐나죠. 그럼에도 강민철답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저만의 색깔을 뜻하니까요. 레스토랑의 크기나 개수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민철 셰프가 생각하는 강민철다운음은 시장에 가서 직접 식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며칠 전에도 수레를 끌고 경동시장을 누볐다면서 말이다. 서울을 미식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강민철 셰프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한남동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렌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준비 중인데요, 아마 내후년쯤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울을 시작으로 파리와 뉴욕에 강민철 레스토랑을 내는 게 제 꿈이에요.”

서울과 파리, 뉴욕이라니! 이보다 더 강민철다운 꿈이 있을까. 우린 그저 그가 만들어가는 완벽함이라는 미식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강민철이다.

맛있다고 느낄 만큼 잘 풀어냈다. '테린 드 캄파뉴'도 인기가. 고기 혹은 부위마다 재료의 성질에 맞게 으개 목의 형태로 굳힌 테린은 프랑스 정통 요리 방식 중 하나로, 맛있게 구운 전통 캄파뉴 위에 테린과 직접 숙성시킨 래디시 피클, 버섯 피클, 코니송, 머스터드, 양파 등 단맛과 산미, 식감을 고려한 사이드와 조화롭게 구성한 콜드컷이다. 한우 홍두깨살을 얇게 저며 질 좋은 올리브 오일과 특제 향신료를 뿌리고 제철 야채와 캐비아를 올린 '한우카르파치오'는 일반적인 카르파치오보다 훨씬 고급스럽다. 이 밖에도 세비체부터 풍당 오 쇼콜라와 크렘브뤼레, 티라미수를 한데 담은 스페셜 디저트까지. 선택지가 다채롭다.



주목해야 할 갤러리 Gallery in Seoul

세대를 막론하고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만큼 세계 아트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도 날로 커져가고 있다.

지금 한국의 아트 시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갤러리를 소개한다.

Editor 지연 Photo 각 장소 제공



1



2



3

1PKM 갤러리 전경 **2,3**PKM 갤러리에서 전시한 정창섭 작가의 'Mind in Matter'

PKM GALLERY

미술 작품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무심코 들어간 미술관에서 인상 깊은 작품을 만나거나 분위기가 좋아서 자주 찾게 되는 갤러리가 있다. 삼청동에 위치한 PKM 갤러리가 바로 그런 곳이다. 2001년 개관한 PKM 갤러리는 국내외 미술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작가들을 소개하며 입지를 다져온 곳이다. 단색화의 거장 윤형근과 권진규, 구정아, 코디최, 이상남 등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전시뿐 아니라 존 발데사리, 올라퍼 엘리아슨 등 해외 저명 작가들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윤형근, 정창섭 등 원로 화가의 미술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해외에 널리 알리는 데도 주력했다. 2004년 한국 화랑 최초로 프리즈 아트 페어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아트 바젤, 피아크(FIAC), 아머리 쇼, 엑스포 시카고 등 명망 있는 국제 아트 페어에 꾸준히 진출하며 뛰어난 한국 근현대 작가들을 세계 미술계에 소개하고 한국 미술이 국제 무대에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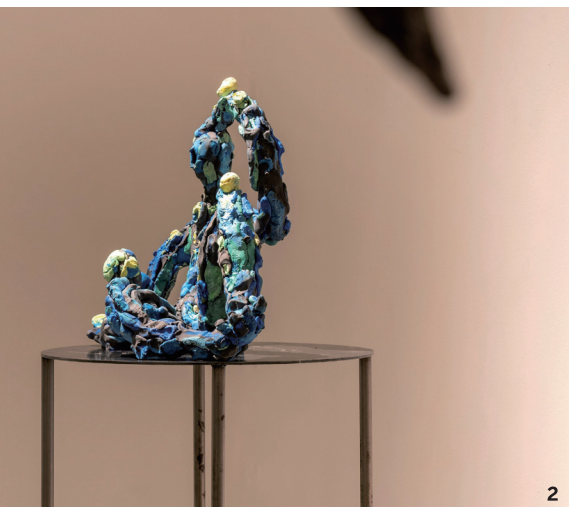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7길 40

운영 시간 화-토요일 10:00~18:00

문의 02-734-9467, www.pkmgallery.com



1



2

1 공근해갤러리 외관 모습 2,3 현재 전시 중인 조각가 박인탄 개인전 〈Palette〉의 작품들

K·O·N·G GALLERY 공근해갤러리

베르나르 포콩, 마이클 케나 등 사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직한 작가들이다. 이들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갤러리가 바로 공근해갤러리다. 2005년 개관한 공근해갤러리는 해외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사진계에 이들의 이름을 알려왔다. 2010년에는 지금의 자리인 삼청동 청와대 춘추관 옆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사진뿐 아니라 회화, 조각, 비디오, 설치 등 다양한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갤러리로 영역을 확장했다. 지금은 베르나르 포콩, 마이클 케나 외에도 네덜란드의 어윈 올라프, 핀란드의 펜티 사말라티, 러시아의 팀 파르치코브, 중국의 첸루오빙 등 세계적인 작가들과 전속 계약을 맺고 21세기 다양한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을 국내에 선보이고 있다. 해외 작가들 외에도 젠박·민정연·신혜진 등 국내 젊은 작가들도 전속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현재 MZ세대 조각가 박인탄 개인전 〈Palette〉가 열리고 있다.

INFO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7길 38 공근해갤러리빌딩

운영 시간 화-토요일 10:30~17:30

문의 02-738-7776, konggalle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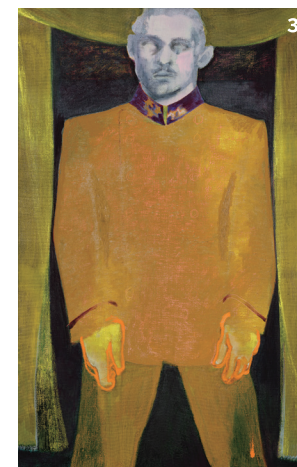


1

1 VSF 초창기부터 같이해오고 있는 니키 리의 'The Skateboarders Project' (29), 2000. 2 얼마 전 전시를 마친 마크 양의 'Split Contour', 2021. 3 최근 VSF에 합류한 알렉스 폭스턴의 'The Assassin in the Archduke's Uniform', 2022. 4 한남오거리에 자리한 VSF 갤러리 5 10월 15일까지 진행된 디드릭 브라켄스의〈Together our shadows make asingle belly〉전시 모습



2



3



4



5

VSF

VSF(Various Small Fires)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갤러리 중 하나다. 2019년 한남동에 문을 열었을 때부터 한국 미술계의 이슈였다. VSF는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 '합'한 갤러리로 이미 알 만한 사람은 알고 있었다. VSF를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에스더 김 바렛. VSF를 만든 대표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통적 갤러리의 틀을 깨고 지금의 VSF를 탄생시켰다. 갤러리 이름 역시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사진작가인 에드 루샤의 대표작 사진집 〈다양한 작은 불꽃들과 우유〉에서 가져왔다. 다양한 형태의 불의 모습을 주제로 한 16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사진집으로, 세상을 밝히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 되고 싶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VSF는 국제적으로 떠오르는 신인 작가와 중견, 원로 작가를 소개하며 LA 미술계의 촉매자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로스앤젤레스, 서울, 댈러스에 분점을 두고 미국과 한국 사이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 작가로 초창기부터 함께한 사진가 니키 리와 매스 배스, 얼마 전 서울에서 전시를 마친 마크 양, 가장 최근에 합류한 알렉스 폭스턴 등이 있다.

INFO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79

운영 시간 화-토요일 10:00~18:00 문의 070-8884-0107, www.vsf.la



1



2

1 원앤제이 갤러리 외부 전경 **2** 원앤제이의 소속 작가 강홍구의 〈빨발, 기점도, 화도, 어의도〉, 2022 **3** 〈생동하는 틈〉 전시 **4**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도시 풍경을 몽타주화한 김수영 작가의 'Work No. 47', 2017. **5** 김수영 작가의 2000년대 초기작 중 하나인 'Cite du Refuge', 2004



4



5



3

ONE AND J. GALLERY

원앤제이 갤러리 역시 미술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알아둬야 할 한국 대표 갤러리 중 하나다.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잠재력 있는 한국의 젊은 작가를 발굴해 한국의 현대미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원앤제이 갤러리는 재능은 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신진 작가나 개념 미술이나 설치미술 등을 하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장기적 플랜하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해외 주요 아트 페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갤러리를 개관한 2005년부터 꾸준히 아트 바젤, 프리즈, 아머리 쇼 등에 참여해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 무대 진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아트 바젤에서 한국 최초로 발루아즈상(The Baloise Art Prize)을 수상했다. 2016년에는 두 번째 전시 공간인 원앤제이 플러스원을 개관, 국내외 젊은 작가와 기획자를 위한 다양한 예술적 실험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갤러리 대표 작가로는 강홍구, 권경환, 김수영, 김윤호, 서동욱 등이 있다.

INFO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31-14

운영 시간 화-일요일 11:00~18:00 문의 02-745-1644, oneandj.com

한국가구박물관서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80 4MATIC 에디션 100’ 공개



메르세데스-벤츠는 한국가구박물관에서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80 4MATIC 에디션 100'을 공개했다고 지난 6월 17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마이바흐 100주년을 맞아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80 에디션 100 한정 모델을 출시했다.

에디션 100은 외관 투톤 컬러를 적용하고 실내를 최고급 소재로 꾸민 모델로, 세계 100대 한정 생산한다. 국내에는 17대만 판매할 예정이다. 한국은 마이바흐 S-Class가 중국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주요 시장으로 상당한 규모의 차가 배정되었다. 외관은 수작업으로 칠한 실버·블루 투톤 컬러로 남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C필라에 부착된 에디션 100 레터링, 20인치 마이바흐 휠도 특별함을 더한다.

실내는 센터콘솔·시트백·플로어 매트 등에 새겨진 마이바흐 엠블럼으로 품격을 높인다. 리클라이닝을 지원하는 이그제큐티브 시트는 등받이를 최대 43.5도 눕힐 수 있다.

편의 사양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접이식 테이블 ▲컴포트 도어 ▲11.6인치 풀 HD 터치스크린 ▲부메스터 하이엔드 4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등이 있다.

엔진은 V형 12기통 가솔린이고, 변속기는 9단 자동이다. 최고출력 630마력, 최대토크 91.7kg·m를 낸다. 에어매틱 서스펜션은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을 통해 각 휠을 개별적으로 제어, 언제 어디서나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한다. 요하네스 슈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프로덕트·마케팅·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부사장은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80 4MATIC 에디션 100은 마이바흐 장인 정신과 기술력이 만들어낸 최고의 차”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루이 비통 천재 디자이너인 고(故) 버질 아블로와 협업한 마이바흐 모델을 국내에 선보여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더클래스 효성 '친환경 자동차' 주제로 어린이 그림 대회 성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지난 7월 가빛섬에서 실시한 '2022 어린이 그림 대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더클래스 효성 어린이 그림 대회는 더클래스 효성에서 차량을 출고한 고객의 6세부터 12세 자녀 5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친환경 자동차'를 주제로 창의적인 그림 솜씨를 발휘했다.

현장에서는 창의력, 주제 표현력 및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2명의 대상과 9명의 우수상을 시상했다.

또한 더클래스 효성은 가족 고객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하고자 페이스 페인팅, 피어로 풍선, 캐리커처, 가족사진 촬영 등 다양한 참여형 현장 행사도 마련했다. 그뿐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가족 고객에게 메르세데스-벤츠 우드커버 & 러기지박스,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트래블백, 메르세데스-벤츠 스틸 텀블러 등을 증정했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미래의 중요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더클래스 효성은 앞으로도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다채롭게 기획하여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클래스 효성 KBS교향악단과 특별한 파트너십 체결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지난 8월 18일 KBS교향악단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클래식 문화 진흥과 자변 확대에 힘을 합치고, 고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더클래스 효성에서는 KBS교향악단에 리무진 대형 버스인 '스타크루저'를 제공해 단원들의 편안한 이동을 통한 연주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KBS교향악단 주요 공연 지휘자와 협연자에게도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제공할 예정이며, 다양한 이벤트 활동도 함께 추진해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KBS교향악단은 더클래스 효성 고객 및 자녀 초청 실내악 공연과 클래식 강의를 제공해 클래식 음악을 통한 고객의 품격 있고 특별한 기회를 선사한다. 또한 KBS교향악단 대표 브랜드인 정기 연주회에 더클래스 효성 고객을 초청해 감동의 순간을 전할 예정이다.

더클래스 효성 이철승 대표는 "대한민국 대표 교향악단인 KBS교향악단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클래식 음악이라는 하나의 문화를 매개체로 고객에게 소중한 기회와 감동의 순간을 전달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클래식 문화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고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클래스 효성 하남 서비스센터

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 188

서비스 예약 및 문의 : 02-3433-1900



더클래스 효성 서비스센터
카카오톡 채널



하남 서비스센터 소개

더클래스 효성

instagram.com/theclasshyosung/
youtube.com/channel/UCvwTbWToVRH3gLqHWgYXpJw
facebook.com/ilovetheclasshyosung

더클래스 효성 서비스센터

■강남대로 서비스센터 02)570-1111 ■서초 서비스센터 02)3488-2400 ■도곡 서비스센터 02)575-7340 ■신사 서비스센터 02)540-7900 ■송파 서비스센터 02)2152-3333
■하남 서비스센터 02)3433-1900 ■안양 평촌 서비스센터 031)596-2600 ■죽전 서비스센터 031)786-6100 ■용인 수지 서비스센터 031)290-3700
■구리 서비스센터 031)579-0970 ■동탄 서비스센터 031)880-0288 ■청주 서비스센터 043)299-9090 ■천안 서비스센터 041)620-7070

‘한화클래식 2022’에 ‘메르세데스-벤츠 E350 4MATIC 아방가르드’ 후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강원도 춘천 제이드팰리스 골프클럽에서 진행되는 ‘한화 클래식 2022’에 ‘메르세데스-벤츠 E350 4MATIC 아방가르드’ 차량을 출인원 상품으로 후원한다고 밝혔다.

더클래스 효성은 15번 홀에서 출인원을 기록하는 최초 선수에게 메르세데스-벤츠 E350 4MATIC 아방가르드 차량을 상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E350 4MATIC 아방가르드는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외관에 고급스러운 휠 디자인을 갖춘 럭셔리 세단이다.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철학을 담은 주행 보조 시스템 등 혁신적 기술도 탑재했다.

대회 기간에는 갤러리 플라자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 450+ AMG 라인’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춘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쿠페(메르세데스-AMG GT 4-Door 63 S 4MATIC+)'의 전시도 진행했다. ‘더 뉴 EQS’는 진보적인 럭셔리를 구현한 외관 디자인과 다양한 첨단 편의 및 안전 시스템으로 차별화된 럭셔리 감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로 위의 레이스카로 불리는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쿠페’는 뛰어난 드라이빙 다이내믹스로 특별한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더클래스 효성 ‘AMG CircuitDay 고객 초청 행사’ 성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지난 8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AMG SPEEDWAY(스피드웨이)’에서 ‘AMG Circuit Day 고객 초청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고객들이 메르세데스-AMG의 폭발적 성능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드라이빙 테크닉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 더클래스 효성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양일간 총 100명을 초청했다.

참가자들은 현역 프로 레이서들과 함께 ▲메르세데스-AMG의 첫 번째 4-도어 스포츠카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쿠페’ ▲감각적 디자인과 동급 최고 수준의 파워를 지닌 ‘메르세데스-AMG C 63 S 쿠페’ ▲터보 차저엔진 탑재로 짜릿한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메르세데스-AMG CLA 45 S’ 등을 서킷에서 직접타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클래스 효성은 이번 행사에 메르세데스-AMG 라인업 차량의 퍼포먼스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메인 인스트럭터가 탑승한 선두 차량을 따라 운행하는 ‘Lead & Follow’, 메르세데스-AMG의 압도적 가속력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Drag Race’, 서킷에서의 코너 공략법을 익힐 수 있는 ‘Cornering Exercise’, 영상 교육을 통해 스포츠 주행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V/D Classroom’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토어

완전히 새롭게, 가장 빠르게
온라인 샵으로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신차



인증중고차

더클래스 효성

instagram.com/theclasshyosung/
youtube.com/channel/UCvwTbWToVRH3gLqHWgYXpju
facebook.com/ilovetheclasshyosu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강남대로 전시장 02)575-7500 ■송파 전시장 02) 3434-4000 ■분당 정자 전시장 031) 786-6000 ■안양 평촌 전시장 031) 689-8900 ■구리 전시장 031) 579-0900
■용인 수지 전시장 031) 5183-9200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031) 8072-8900 ■청주 전시장 043) 299-9000 ■천안 전시장 041) 620-7000 ■동탄 전시장 031) 880-0200
■인중중고차 하남 전시장 02)3433-1999 ■인중중고차 죽전 전시장 031) 786-6171 ■인중중고차 천안 전시장 041) 555-5070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For Readers

〈THE CLASS〉에 보여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매달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나날이 발전하는 〈THE CLASS〉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이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SNS에
업로드한 후 편집부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필수 해시태그_#더클래스호성
#theclass #가족스타그램
매거진 인증 샷 또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꼭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언니, 동생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식구들, 학교 친구들 또는
패밀리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단체 사진이라면 OK!
가족, 친구들과 함께한 행복한 한때를
담은 추억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본인의
SNS에 업로드한 후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호 사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 공지

2022년 〈THE CLASS〉 겨울호에 발표
※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드립니다.
※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소 안내

애독자 편지 및 〈THE CLASS〉
인증샷 링크, 가족사진 보낼 곳
〈THE CLASS〉 편집부
theclass@hankyung.com

SPECIAL GIFT



1
보이스캐디
시계형 거리 측정기 A1
2명



2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아이스박스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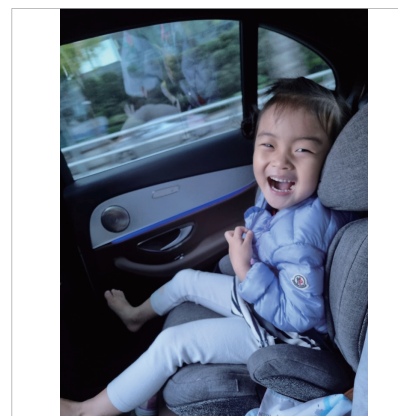
3
플래티넘
미니클 멀티펜
8명

독자 선물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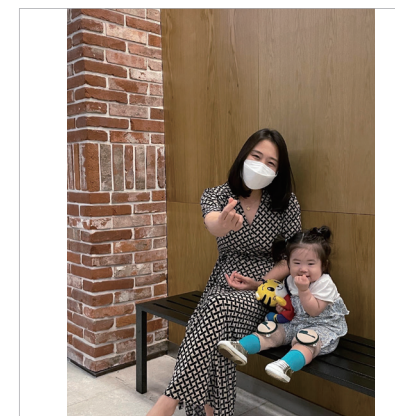
〈THE CLASS〉 독자 선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아래 명단에서 이름과 아이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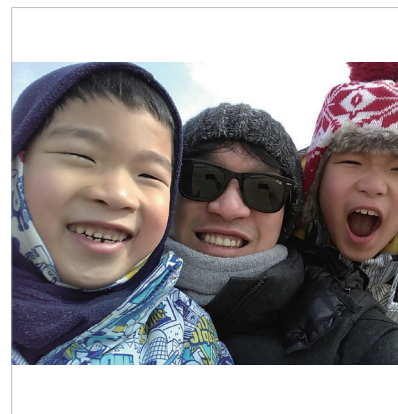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상품을 드립니다. 중복 신청이 많은 경우 원하는 상품으로 배송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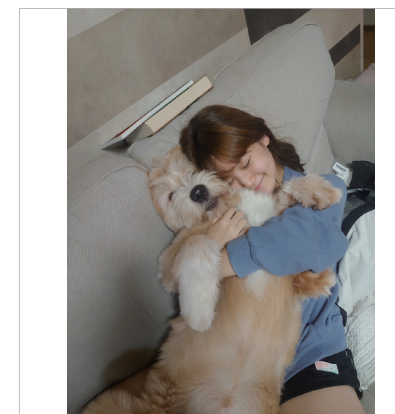
이찬수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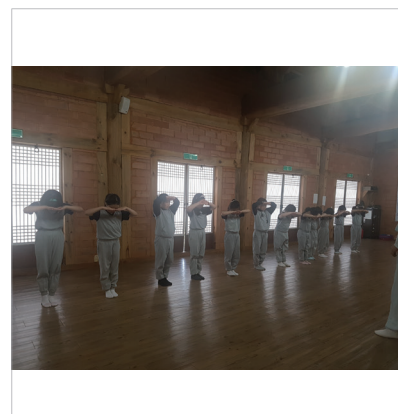
조지은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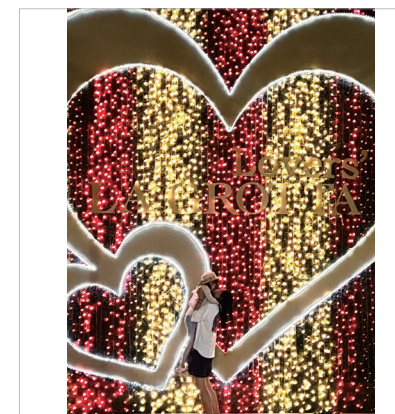
방성한 님



김종욱 님



김소희 님



고혜수 님

- 1.**
보이스캐디 시계형 거리측정기 A1
이찬수 님, 조지은 님
- 2.**
메르세데스-벤츠 미니트래블 백_화이트
방성한 님, 김종욱 님, 배선영 님,
장욱현 님, 김민지 님
- 3.**
메르세데스-벤츠 스틸 텀블러
김소희 님, 고혜수 님, 남기욱 님,
최정현 님, 장연진 님
- 4.**
플래티넘 미니클 멀티펜
조미란 님, 정태수 님, 한다예 님,
정혜수 님, 신주현 님, 박희진 님,
이성연 님, 김지희 님

발송 안내

2022년 11월 둘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제품 입고 시기에 따라 발송일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소 안내

선물은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 응모한 메일로
주소를 회신해주셔야 발송 가능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회원 정보 기입으로 선물을
받지 못한 경우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재발송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THE CLASS〉 매거진 편집부
theclass@hankyung.com



더클래스 효성, 2022 Autumn & 클래식 캠페인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22 더클래스 효성 Autumn 캠페인’과
‘2022 클래식 캠페인’을 실시한다.

Autumn 캠페인에서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유상 수리 고객에게는 와이퍼
블레이드를 제공하고, 100만원 이상 유상
수리 고객에게는 메르세데스-벤츠 S-Class
Cashmere Blanket을 증정하는 등 푸짐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클래식 캠페인은
10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차량 등록일
기준 2019년 11월 19일 이전 등록 차량에 한해
가을철 안전 운전을 위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순정 부품 2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어드바이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클래스 효성 2022 Autumn 캠페인 #1

▶기간 : 2022년 10월 1일 ~ 10월 31일

▶혜택

- ① 유상수리 고객 사은품 증정
- 5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 유상수리 고객 : 와이퍼 블레이드 증정
- 100만 원 이상 유상 수리 고객 : 메르세데스-벤츠 S-Class Cashmere Blanket 증정
- ② 메르세데스-벤츠 액세서리 & 컬렉션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 메르세데스-벤츠 곰돌이 키링 + 방향제 증정 (방향제는 리필로 변경 가능)
- ③ 1년 이상 서비스센터 미방문 고객 대상 메르세데스-벤츠 차량관리용품 패밀리패키지 증정
- ④ 메르세데스-벤츠 오리지널 타이어 최대 55% 할인
- ⑤ 컴팩트 플러스 패키지 신규 가입 고객 대상 추가 혜택 제공

※ 캠페인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본 캠페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당 어드바이저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2 클래식 캠페인 #2

▶기간 : 2022년 10월 11일 (화) ~ 11월 19일(토)

▶대상차량 : 차량 등록일 기준 2019년 11월 19일 이전 등록 차량

▶혜택

- ① 가을철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 ② 순정 부품 20% 할인(엔진 오일 및 타이어 제외)
- ③ 메르세데스-벤츠 온라인 결재 사용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 ④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 무상 장착



메르세데스-벤츠
강남대로 전시장 ·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전시장 **02-575-7500**
서비스센터 **02-570-1111**



메르세데스-벤츠
안양 평촌 전시장 · 서비스센터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74 | **031-689-8900**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73 |
031-596-2600



메르세데스-벤츠
용인 수지 전시장 · 서비스센터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7 | **031-5183-9200**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147 | **031-290-3700**



메르세데스-벤츠
동탄 전시장 · 서비스센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92
(영천동 494-13)
전시장 **031-880-0200**
서비스센터 **031-880-0288**



메르세데스-벤츠
송파 전시장 · 서비스센터
전시장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0 |
02-3434-4000
서비스센터 서울시 송파구 정익로8길 6 |
02-2152-3333



메르세데스-벤츠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 2층
1273호
031-8072-8900



메르세데스-벤츠
청주 전시장 · 서비스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28
전시장 **043-299-9000**
서비스센터 **043-299-9090**



메르세데스-벤츠
천안 전시장 · 서비스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47
전시장 **041-620-7000**
서비스센터 **041-620-7070**

“더클래스 효성이 최상의 서비스와
기술력으로 고객의 마음을 읽겠습니다”



더클래스 효성
바로 가기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효성벤처타워
www.theclasshyosung.com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메르세데스-벤츠
구리 전시장 · 서비스센터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13
전시장 **031-579-0900**
서비스센터 **031-579-0970**



메르세데스-벤츠
분당 정자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7
031-786-6000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55길 65
02-3488-2400



도곡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65길 9
02-575-7340



신사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73
02-540-7900



죽전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9
031-786-6100



인증 중고차 죽전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9
2층 전시장 **031-786-6171**



인증 중고차 하남 전시장 · 서비스센터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 188
전시장 **02-3433-1999**
서비스센터 **02-3433-1900**



인증 중고차 천안 전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33,
1층 **041-555-5070**